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청구논문

제주 향토문화자료의  
통합 서비스를 위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김 형 관

지도교수 최상희

2019년 2월

제주 향토문화자료의  
통합 서비스를 위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기록 관리학과

김 형 관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청구함

지도교수 최상희

2019년 2월

## 김형관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2019년 2월

# 목차

(Abstract)

1. 서론 .....	1
1.1 연구 배경과 목적 .....	1
1.2 선행 연구 .....	2
1.2.1 향토기록에 관한 연구 .....	2
1.2.2 지방자치단체의 향토기록에 관한 연구 .....	4
1.2.3 문화기록 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연구 .....	6
1.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	8
2. 이론적 배경 .....	11
2.1 향토문화자료 .....	11
2.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	15
2.2.1 지방기록물의 개념 및 특징 .....	15
2.2.2 향토문화자료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	16
2.3 지방기록관리 기관의 향토문화자료 온라인서비스 사례 .....	18
3. 제주 향토문화자료 현황 조사 .....	24
3.1 제주도청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현황 .....	24
3.1.1 탐라기록관리소 .....	24
3.1.2 문화정책과(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	26
3.2 제주 박물관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현황 .....	33
3.2.1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33

3.2.2	국립제주박물관	35
3.2.3	제주대학교 박물관	36
3.2.4	제주추사관	38
3.3	제주 공공도서관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현황	39
3.3.1	한라도서관	40
3.3.2	삼매봉도서관	41
3.3.3	동부도서관	42
3.4	제주 연구소(제주학연구센터)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현황	43
4.	제주 향토문화자료 현황 종합 분석	47
4.1	기관 분석	47
4.2	자료 수집관리 분석	49
4.2.1	자료 유형 분석	49
4.2.2	주제 분석	53
4.3	서비스 방식 분석	55
5.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방안에 관한 시사점 및 제안	59
5.1	제주 향토문화자료 운영체제에 대한 시사점 및 제안	59
5.2	제주 향토문화자료 수집·관리에 대한 시사점 및 제안	62
5.3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방식에 대한 시사점 및 제안	67
6.	결론	69
	참고문헌	72

## 표 목 차

<표 1> 제주 향토문화자료 소장기관 인터뷰 일시 .....	10
<표 2> 연구자별 향토자료의 유형 및 범위 .....	13
<표 3> 탐라기록관리소 비전자기록물 현황(2018년 4월 기준) .....	26
<표 4> 제주문화원형/설화편 소장 자료 현황 .....	28
<표 5> 제주의 문화재 자료 제공 현황 .....	29
<표 6> 제주역사 자료 제공 현황 .....	29
<표 7> 민속문화 자료 현황 .....	30
<표 8> 제주방언 자료 현황 .....	31
<표 9> 디지털 콘텐츠 자료 현황 .....	32
<표 10> 제주 공공도서관 향토자료실 및 수집 정책 여부 .....	40
<표 11> 제주학연구센터 KDC 분류에 따른 자료 현황 .....	44
<표 12> 유형별 정보 현황 .....	46
<표 13> 조사기관 현황 .....	48
<표 14> 기관 유형별 향토문화자료 현황 분석 .....	50
<표 15> 온라인서비스 되는 향토문화자료들의 자료 유형 .....	53
<표 16> 웹사이트에서 활용되는 향토문화자료 주제 .....	54
<표 17> 향토문화자료 분류에 적용된 KDC 목록 .....	55
<표 18> 단독형 서비스 방식 종류 .....	57
<표 19> 혼합형 서비스 방식 종류 .....	58
<표 20> 기존 주제와 통합 서비스 주제 매핑 .....	64
<표 21> 제주 향토문화자료 주제(안) .....	67
<표 22> 서비스 방식 제안 .....	69

## 그림 목 차

<그림 1>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의 California Digital Archives 모습 .....	19
<그림 2> 노퍽기록관의 ‘Search NROCAT’ 메뉴 중 아카이브 카테고리 검색 모습 .....	20
<그림 3> 캐나다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의 Online Status Inquiry 화면 .....	22
<그림 4> 호주 빅토리아 주립 기록관의 ‘Explore the Collection’ 화면 .....	23
<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 유물 검색’ 화면 .....	34
<그림 6>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운영체제(안) .....	61

**A study on the Integrated Service for the  
Local Cultural Data of Jeju Province**

**Kim, Hyeong Kwan**

Department of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Archival Studies  
The Graduate School, Daegu Catholic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Choi, Sang hee )

(Abstract)

Local records are essential to the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 Especially local cultural data of local history and culture are very important for local people to understand their heritage and to introduce it to visitors. However, since local cultural materials are managed not only by the local government, but also by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museums, libraries and research institutes, it is not easy to identify the availability of the local cultural data and access to them.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which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and managing local cultural records, to become a principal agent to provide integrated service of local cultural data.

In this study, the major factors for the integrated service of Jeju cultural data were investigated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issues, topics of data, data types and formats, and service types. The investigated institutes are Jeju local government, museums, libraries and research institutes that collect and provide cultural data on Jeju Island. The current state of cultural data and services in these organizations was identified and the interviews with the persons in charge were conducted.

At first, 22 institute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Jeju cultural data. The institutes were narrowed to 10 for the further investigation in detail. These 10 institutes are identified as major organizations to manage and provide services of Jeju cultural record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e of Jeju cultural data, some organizations do not have a policy to collect local cultural data or have no

person in charge.

248,892 local cultural materials were collected and their types are documentary art records, photographs, audio and video records, old manuscripts, maps, books, research reports, and papers. The five formats of data including text (web page, pdf) and images, video, and audio were used for online service. As a result of the analyzing the topics on web sites of Jeju cultural data, 29 topics were identified. In addition statistics of books in Center for Jeju Studies was investigated to discover which sub-categories of KDC were used for the classification of Jeju cultural data.

This study also investigated types of online service of local cultural data by each institution. They are divided into two types: a mono type that serves only one digital file format and a multi type that serves more than two digital file formats. The data of these types are provided by page view or download.

The suggestions and key issues to consider for the integrated service from the previous analysis are follows:

First, managers of local cultural data at each institutes were strongly aware of the need for integrated services and a central organization for integrating Jeju cultural data. To solve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managing local cultural data,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the Jeju local archives by Jeju local government to comprehensively manage local cultural records in Jeju and provide integrated service.

Second, 8 topics are proposed to classify the topics suitable for the Jeju cultural data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topical categories. These are 'religion', 'society,' 'folklore', 'living', 'nature', 'art', 'culture/language' and 'history'.

Third, this study proposed a service method that could be used in an integrated service. A list of local cultural data should be provided as text type (web pages) and the full text of each data should be served as a multi type including two or more types of data.

This study is a primitive research that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Jeju cultural data and suggested key factors for the integrated service of Jeju cultural data. There are limitations that need further research on detailed topic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consortium for management of Jeju cultural records and service systems.

# 1. 서론

## 1.1 연구 배경과 목적

지방기록물은 일정 지역 내에서 형성된 사회조직과 문화적으로 공통된 지방에서 생산한 기록으로 현재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보존되는 공공기록물, 민간기록물과 지역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기록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지방기록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행정에 대해 파악이 가능하고, 연구자들은 지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은 지역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하여 자신들의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방 자치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 관련된 지방기록물인 향토문화자료와 연구 자료는 지역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지역을 방문한 타 지방 사람들에게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향토자료의 중요성을 인지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각 지역만의 역사와 문화를 표현하는 향토문화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를 서비스하였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향토문화자료들을 수집 및 서비스하는 기관들이 있어 향토문화자료들은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관리되었다. 분산된 기관에서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게 되자 서로 중복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특정한 향토자료를 지닌 기관에서만 해당 자료를 볼 수 있거나, 향토자료의 검색이 어려워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게 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향토자료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단순히 향토자료를 온라인에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의 향토문화자료 활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산되어 있는 향토자료 관련 기관들이 서로 중복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관 간 향토문화자료 소재 파악이 쉽게 이루어

---

1) 남신우, 「지방기록물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방안」, 석사학위논문. p.2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

질 수 있도록 분산된 향토문화자료를 통합하여 관리, 서비스해야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도 한 지역의 향토문화자료를 한 곳에서 통합하여 검색하고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향토문화자료의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운영 체제, 향토문화자료 주제, 유형 및 서비스 방식에서 고려해야 되는 주요 요소들을 조사 분석하였고, 각 영역별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주도청 및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 등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기관들을 유형별로 조사하고, 향토문화자료의 관리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 1.2 선행 연구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 위주로 진행되던 기록관리는 2006년 개정된 기록물법에 의해 그 범위가 민간기록물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실행과 기록물법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을 할 것을 명시함에 따라 각 지방에서 생산되는 지방기록물들의 기록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여 공공기록 뿐만이 아닌 민간에서 생산되거나 관리하는 지역기록들과 향토기록 등 문화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이 보존중심에서 활용과 서비스로 확장됨에 따라 문화기록을 활용하게 하는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그 중 네트워크의 발달로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문화기록을 다루는 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 1.2.1 향토기록에 관한 연구

기록학 측면에선 민간 영역이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경험이 없고, 민속학에서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현장 관찰이나 조사방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으나 기록에 대한 이론적 기반

과 전략이 부족하였다. 이에 김덕목(2012)의 연구에서는 공동체의 기록화와 아카이브 전략의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민속기록학을 통하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생활문화의 기록·보존·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탐구하였다.

김덕목(2013)의 후속 연구에서 민속학자들은 향토문화가 전승되고 지역공동체의 기본단위가 되는 마을을 민속조사의 시작으로 삼았다고 하였고, 기록학계에서도 주민의 자치가 시행되는 공동체 공간으로서 마을에 주목하고 있다고 기술하였다. 이에 향토문화백과, 특별한 이야기, 마을 이야기로 구성되는 향토문화전자대전이 나오고, 이 중 마을 이야기를 마을지를 참조하여 만들었다. 하지만 단순히 읽을거리만 있는 것은 저널리즘일뿐 아카이빙이 아니라 생각하여 1차적으로 주민의 삶에 대한 기록을 통한 주민사의 복원을, 2차적으로는 학술적, 정보적, 문화적 가치의 실현을, 마지막으로 독자의 흥미거리 유발과 같은 부분까지 고려하여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민속학적 연구방법에 기록학적 마인드를 결합한 민속기록학적 시각을 제시하였고, 향토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디지털콘텐츠의 구축과 향토문화를 기록·보존·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에 적절한 이론과 방법을 제공하여 민속기록학적 입장에서 디지털마을지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토기록에 대한 연구 중 제주도 향토기록을 연구한 사례가 있다. 김하나(2007)의 연구는 제주도 내외의 학자와 전문가들이 발굴한 제주 관련 향토자료들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손실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들을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2006년부터 제주도와 관련된 주제어를 입력하면 그에 관한 설명과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을 제작하는 사실을 소개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2008년 전라남도 시·군 문화원을 대상으로 나온 문정희(2008)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향토자료를 생산 및 관리하는 기관인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문화원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원의 향토자료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고, 이를 분석한 문제점을 토대로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문화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 문화원 당 사무국장과 1명의 직원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업무처리와 향토자료 관리에 어려움이 많고, 향

토자료 관련 교육이 힘들어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향토자료 관련 예산은 향토자료 관련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문화원 별로 편차가 커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인력이나 예산이 한정된 현실 속에서 문화원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 교육의 기회를 통해 향토자료 관리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향토자료의 중복 수집이나 관리로 나타난 인적, 물적 문제점을 줄이고 상호 보완하도록 하는 식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시대를 맞아 향토자료는 지역에 관한 여러 정보를 담고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고, 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정주연(1998)의 연구에서는 향토자료가 지닌 개념과 의미를 되새기고, 향토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관리에 적합한 기관이 공공도서관임을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부산 공공도서관의 향토자료 수집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현재 공공도서관이 향토자료 수집과 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제안하였다.

향토문화자료가 지닌 가치를 알고 이를 후세에 전하는 것을 중요히 여긴 연구인 한동현(2011)의 연구에서는 향토문화자료를 후세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료 그대로를 전달하기 보다는 자료를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변화시켜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향토문화자료들이 제대로 해석 되지 못한 상태로 전달되며 자료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향토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향토문화자료들을 다양한 콘텐츠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1.2.2 지방자치단체의 향토기록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향토기록을 서비스하는 사례를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방자치체의 향토기록 중 인천시의 지방역사기록물을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관리할 것을 주장한 최정은(2010)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인천시의 역사기록물들이 풍부하게 조사·수집되지 못하고, 여러 곳에

나뉘어 분산 보존되어 그 내용과 양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기술하였다. 또한 인천시 역사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한 보존환경과 전문 인력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석하였다. 이에 지방 역사기록물의 통합 관리 및 활용이 가능한 온라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지방역사기록물의 소재를 파악하고, 중요성을 인식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향토기록의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한 정범진(2018)에 따르면 남양주시에서는 향후 지역의 중심이 되어야 할 20대 청년들의 정주의식이 가장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 고유의 로컬리티가 소실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민의 자부심과 정주의식을 강화 시키는 방안으로 지역문화자원과 온라인 아카이브를 연계하고 이 온라인 아카이브에 이용자가 댓글을 달고 수정, 자료 기증 등의 활동 참여를 허용하여 아카이브 운영에 참여시키는 참여형 아카이브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안산시를 중심으로 진행한 남신우(2003)는 자료관, 문화원, 박물관, 도서관 등의 기관들이 해당지역의 지방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지만, 각 수집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호 연계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방기록물의 원활한 활용과 관리를 위해 지방기록물 수집기관들이 수집된 지방기록물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야 함을 말하며 더불어 정보 통합을 위해 지방기록물수집기관과 자료관의 기능을 활용, 상호연계성을 확립할 것을 주장하며 자료관의 기능과 역할을 점검하였다.

고영순(2011)의 연구에서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한 시청각 기록물이 중요 기록물이 아닌 부수적이면서 낮은 가치를 지닌 기록물로 인식되어 행정적인 지원이 미흡한 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중 독립 직제로 신설된 제주 탐라기록관리소가 시청각 기록물을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보존하는지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시청각 기록물의 효율적 활용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제주 탐라기록관리소에서는 시청각 기록물을 기록관리 부서가 아닌 공보실이나 홍보과에서 생산, 관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생산량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다. 둘째, 이관 강제 조항이 미흡하여 제대로 이관되지도 않았으며, 보존환경도 제대로 갖추

어지지 않아 기록물이 훼손과 멸실의 위험에 처해있고, 제대로 활용되지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시청각 기록물은 일반 기록물과 달리 생산 이후에 선별되고 가공이 완료된 기록물을 등록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에 전문가적인 안목을 가지고 선별하여 등록하게 하고 생산과 수집의 강화, 이관을 강제하는 시스템 마련,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기록물보존서고를 재정비, 통합된 기록물 보존서고 설치와 시청각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전문서고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보존 장비와 편집 장비, 전문 인력,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시청각기록물의 일목요연한 관리를 위한 DB구축과 주요 기록물에 대한 이중보존 작업, 기록관의 아날로그 기록을 디지털화 시켜 이용자들에게 시청각 기록물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활용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 1.2.3 문화기록 온라인서비스에 관한 연구

문화기록을 이용자에게 접근 가능하게하기 위해서는 직접 기관으로 찾아와 기록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문화기록의 소재를 파악하고 신속한 이용을 제공하기 위해서 온라인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는 문화기록이나 향토자료를 통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서비스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문화기록을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선수(2006)의 연구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적 기록 보존소인 아카이브의 개념과 디지털 시대를 맞아 등장한 디지털 아카이브의 형태를 넘어선 디지털 콘텐츠 몰의 개념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디지털 콘텐츠 몰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국내외의 여러 유사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콘텐츠를 구축할 경우 국내의 경우 각 콘텐츠에 대해 길게 설명하다보니 웹사이트의 구성이 산만하고 이용이 쉽지 않은 반면, 해외의 경우 글로벌 메뉴를 간소화시키고 검색 메뉴를 강조하여 실용성을 추구했다는 점을 비교하며 문화기록의 온라인서비스 효율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기록 메타데이터를 국내보

다 해외가 더욱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며 국내 서비스 개선을 위해 메타데이터 생성과 콘텐츠 포맷의 통일을 강조하였다.

양인호(2009)의 연구를 보면 이용자들이 기록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도 없이 여러 서비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록관은 이용자들이 기록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서비스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더불어 과거 보존 중심 기록관리 업무에서 기록의 활용을 중시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기록관의 역할이 변화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사회 환경적 변화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방자치제도의 시행과 함께 지방의 특성화가 요구되며 각 지방에서는 지방의 역사와 문화 및 특색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다양한 형태로 지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다양한 기록정보콘텐츠를 개발하고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정보콘텐츠의 구성 방안에 대해 연구한 심가영(2010)의 연구는 대부분 지방은 지방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주제를 가지고 교육과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고, 주로 기록을 디지털화한 이미지와 텍스트를 바탕으로 기록정보콘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향토적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주제를 여러 개의 범주로 구성하고, 그 주제에 향토기록을 연결하여 기록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방의 특성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을 설계하여 지방기록을 콘텐츠화 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밖에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향토기록을 콘텐츠로 구성할 때의 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향토기록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장성군 홍길동 문화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박윤성(2010)의 연구가 있다. 급격한 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정보기술 환경에서 전통적인 문화와 첨단 정보 통신을 접목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구축을 위해 새로운 틀과 내용들이 요구되고, 이에 디지털 기술에 의해 가공된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인 디지털 아카이브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정보문화산업의 일환인 장성군 홍길동 문화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사례를 분석

하여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방안 가능성과 그 기대효과를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민요박물관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서비스에 대한 방안을 제시한 김정수(2016)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민요의 뛰어난 가치와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민요관련 기록을 보존하기 위하여 민요박물관 건립과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를 통해 산발적으로 수집 및 보관, 관리가 이루어져 온 기록물들을 통합적으로 수집, 관리, 서비스하는 것이 미래 민요문화의 창조와 더불어 민요의 가치 제고 및 확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1.3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제주도 내 여러 기관에서 관리 및 서비스 되고 있는 향토문화 자료를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지방정부를 주체로 하는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의 운영 체제, 콘텐츠 주제, 자료 유형 및 서비스 방식 등 각 영역별로 주요 사항들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향토문화자료에 대한 선행연구와 향토문화자료를 다루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관련된 연구를 분석하여 향토문화자료의 개념과 범위를 정의하였고, 향토문화자료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그 연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향토문화자료 디지털 아카이브의 선행 사례들을 조사하여 각 기관과 해당 기관들의 협력체계,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의 컬렉션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방안에 반영되어야 할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향토문화자료를 온라인서비스 하는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주 사례에 응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사례들로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 기록관(California State Archives), 영국의 노퍽기록관(Norfolk Record Office),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립 기록관(Archives of Ontario), 호주의 빅토리아 주립 기록관(Public

Record Office Victoria)의 온라인서비스를 조사하였다.

둘째, 현재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소장하고 서비스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되고 있는 자료와 기관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제공하는 기관의 유형을 제주도청, 박물관 및 도서관, 연구소 등 총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 제주도청의 경우에는 두 개의 하위 부서에서 별개로 향토기록을 담당하고 있어 각각의 하위기관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하위 부서는 탐라기록관리소와 문화정책과이다. 탐라기록관리소는 제주도청의 향토기록물을 수집, 관리하는 것으로 지정된 부서이며 문화정책과는 향토기록 온라인서비스인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박물관 및 도서관의 사례의 경우 제주도 내 향토문화자료를 소장하고 서비스 하고 있는 박물관 4곳과 제주 공공도서관 15곳을 조사하였다. 공공도서관 15개 중 향토자료실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3곳의 도서관을 상세 조사하였다. 연구소는 제주학을 연구하는 기관인 제주학연구센터를 조사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을 연구하고 있는 핵심기관으로서 현재 다른 제주학 연구소들의 자료를 받아 통합 DB를 구축 중 이었다. 기관별 조사를 통해 제주 향토문화자료의 현황, 온라인서비스의 현황(홈페이지 조사)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위 사항들을 분석하여 지방정부를 주제로 하는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도출하였다. 조사한 제주 향토문화자료 현황에 대해 기관 현황, 자료 수집관리 현황, 서비스 방식 현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통합 서비스를 위한 운영체제에 대한 사항, 자료 수집관리에 대한 사항, 서비스 방식에 대한 사항들의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안 사항을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 기관조사, 웹사이트 분석, 기관 방문 및 담당자와의 인터뷰 등이며 각 연구방법이 수행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헌조사는 향토문화자료의 개념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 및 관련 법령 조사와 향토문화자료와 지방기록 보존소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조사, 향토문화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 조사를 위한 문헌 조사, 해외 사례 조사를 위한 관련 연구 및 조사로 구성되어 실시되었다.

기관조사는 제주도 내 향토문화자료를 다루는 22개의 기관들을 조사하였다. 기관들은 제주도청의 탐라기록관리소와 문화정책과(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박물관 4곳(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제주추사관), 연구소 1곳(제주학연구센터), 도서관 15곳을 조사하였다.

웹사이트 분석에서는 제주탐라기록관리소, 제주 멀티미디어 대사전 홈페이지, 박물관과 도서관 홈페이지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분석을 실시하여 향토문화자료의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담당자 인터뷰는 웹사이트 분석 이후 기관 방문 및 담당자 전화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현장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기관 및 향토문화자료 현황과 향토문화기록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표 1> 제주 향토문화자료 소장기관 인터뷰 일시

기관 유형	기관명	인터뷰 일시
제주도청	탐라기록관리소	2018. 11. 19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2018. 10. 01
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2018. 09. 28
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2018. 09. 28
박물관	제주추사관	2018. 10. 01
도서관	한라도서관	2018. 11. 19
도서관	삼매봉도서관	2018. 11. 09
도서관	동부도서관	2018. 09. 29
연구소	제주학연구센터	2018. 10. 10

## 2. 이론적 배경

### 2.1 향토문화자료

일반적으로 ‘향토’란 고장을 말하지만 학술적으로는 공통된 생활양식과 협조와 단결된 통일의식과 역사적 유물을 공유하고 있는 일정한 지리적 범위의 생활권을 말한다. 향토자료는 이러한 특정 생활권에 관한 자연환경, 역사, 전설, 인물, 민속, 주민산업, 문화, 경영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간행물, 유물, 유적, 표본, 견본, 모형, 사진, 레코드, 필름, 테이프 등을 말하고 있다(성현규 2017; 문정희 2008에서 재인용).

향토자료의 학술적 개념을 살펴보기 위하여 연관 용어 사전을 찾아보면 ‘향토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미국아키비스트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용어사전<sup>2)</sup>에서는 향토자료를 ‘Local Records’라 지칭하며 ‘시·군·자치구 등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집되는 공공기록물’로 정의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향토자료’란 ‘도서관이 위치한 특정지역에 관한 도서, 지도, 삽도 및 기타자료 일체로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그 지역에 관한 및 그 지역에서 출판되는 단행본, 신문, 잡지, 필사본, 시청각자료, 민속자료, 고문서를 비롯한 각종문서, 그 지방소재 기업체 및 단체의 간행물과 이들에 관한 자료’로 지칭하고 있다(사공철.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1996, p. 431).

향토자료는 ‘향토’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사 개념인 ‘지방’이라는 단어와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어 향토자료라는 용어 외에도 지방자료 혹은 지역자료 등 정확한 개념의 구분 없이 유사한 개념들과 함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

2)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http://archivists.org/glossary>> [cited 2018. 10. 18]

정주연의 연구에 따르면 ‘향토’란 단어에는 자기 고장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애정이 깃들여 있어 ‘향토’ 지역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지방’이라는 단어는 지역을 한정하는 동시에 시골이라는 뜻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 자기 고장에 대한 애정과 같은 주관적 인식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위 두 단어는 단어에 부여한 가치가 중립적이지 않지만 ‘지역’이라는 단어는 지리적·행정적으로 한정된 공간을 의미하여 가치가 중립적인 단어라고 하였다(정주연 1988).

이 연구에서는 정주연의 향토, 지방, 지역에 대한 해석을 차용하여 자신의 고장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고 특정 생활권에 대한 자료의 가치를 평가하여 보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향토’, ‘지방’, ‘지역’이라는 단어 중 ‘향토’를 채택하였다.

‘향토자료’는 ‘향토에 관한 자연환경, 역사, 전설, 인물, 민속, 주민산업, 문화, 경영 등에 관하여 조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간행물, 유물, 유적, 표본, 견본, 모형, 사진, 레코드, 필름, 테이프 등을 지칭하는 자료’라고 성현규의 연구에서 정의되었다(성현규 2017). 이 연구에서 정의한 것에 따르면 ‘주민산업, 경영’은 행정적 성격을 지니고 ‘자연환경, 역사, 전설, 인물, 문화’ 등은 문화적인 성격을 지니므로 이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향토자료를 행정적 자료와 문화적 자료로 나누고 문화적 자료에 초점을 맞추어 향토자료 현황을 조사하였다.

‘향토자료’ 중 문화적인 성격을 지닌 자료에 대한 용어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를 살펴 본 결과 문화와 관련된 향토자료의 유형과 범위를 설명하는 ‘향토문화자료’의 개념을 설명하는 한동현(2011)의 연구가 있었다.

한동현(2011)의 연구에서는 ‘향토문화자료’를 ‘향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자연 환경 속에서 생겨난 역사, 전설, 민담, 민속, 풍습, 인물, 산업, 유적, 유물 등 향토 문화에 대하여 기록한 기록물들과 유적, 유물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향토문화자료들에는 인물, 역사, 풍습, 전설, 신화, 음악, 노래, 춤 등 대중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향토문화자료들을 접근성이 높은 향토 문화 자원으로 변형하고, 이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창의적인 문화콘텐츠의 생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하고 있다.

향토자료의 개념을 논의한 연구 외에도 향토자료의 유형과 범위 등과 관련된 연구들은 장대원(1976)의 연구와 정주연(1988)의 연구가 있으며 향토자료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이 두 연구를 참조하고 있다.

장대원(1976)의 연구에서는 향토자료를 형태, 내용, 작자별로 나누어 유형을 구분하였다. 향토자료의 형태는 인쇄 기록, 서사 기록, 그림 기록, 조각 기록으로 나누었고 내용별 구분의 경우 순수한 향토자료(향토에 관한 지리, 종교, 문학, 어학 등)와 향토인의 전기에 관한 자료로 나누었다. 향토자료를 작자별로 구분할 때는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해당 향토인, 향토 지역의 공기관, 향토 지역의 단체, 향토 종교 단체로 구분하였다(장대원 1976; 문정희 2008에서 재인용).

정주연(1988)의 연구에서는 내용(주제), 생산주체, 시기, 형태별로 향토자료의 유형을 나누었으며 이 중 내용에 따른 구분에서는 향토·지방사자료, 향토 관련 예술 자료, 향토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인 향토문화자료와 지방행정과 관련된 지방 행정 자료, 유물과 민속품, 미술품 등 각종 전시를 위한 자료인 순박물관적 자료로 구분하였다.

<표 2> 연구자별 향토자료의 유형 및 범위

	향토자료의 유형	향토자료의 범위
장대원(1976)	형태: 인쇄, 서사, 그림, 조각 내용: 순수 향토자료, 향토인의 전기 자료 작자: 향토인, 향토 공기관, 향토 단체, 향토 종교 단체	X
정주연(1988)	내용(주제)별 구분 생산주체별 구분 시기별 구분 형태별 구분	해당 지역과 관련되어 지역을 밝혀 낼 수 있는 과거~현재까지의 다양한 단체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
문정희(2008)	장대원 연구 인용	지리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이나 향토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에서 나오는 자료

향토자료의 범위는 많은 연구자들이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었다. 정주연(1998)의 연구에서는 그 지역에 관련되어 지역을 밝혀낼 수 있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단체의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이라 하였으며, 문정희(2008)의 연구에서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문화원이나 향토자료를 관리하는 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에서 나오는 자료로 보고 있었다. 추가적으로 해당 향토 출신의 인물이 쓴 다른 지방의 자료나 반대로 타지방의 인물이 향토 내에서 업적을 쌓았거나 향토에 일정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도 해당 자료들을 향토자료의 범위로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향토문화자료’의 개념을 한동현의 연구에서 제시한 개념과 범위를 차용하여 해당 범위에 대한 문화자료가 서비스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향토자료의 유형은 장대원과 정주연의 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공통적인 부분을 도출하여 향토자료의 유형을 기관별, 내용(주제)별, 형태별로 나누었다.

향토문화자료의 범위는 정주연(1988)의 연구를 참조하여 향토·지방사자료, 향토 관련 예술자료, 향토를 소재로 한 문학작품, 유물과 민속품, 미술품 등 각 종 전시를 위한 자료인 순박물관적 자료를 범위로 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 2.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 2.2.1 지방기록물의 개념 및 특징

‘지방기록물’이란 일정 지역을 기반으로 그 지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기관, 사설기관, 단체, 개인 등 생산주체와 관계없이 지방에서 생산되고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해명해주는 모든 기록 자료를 말한다(서한글 2012; 전세연 2005에서 재인용). 지방기록물 중 공공기관에서 나온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사설기관이나 단체, 개인 등에서 나온 기록물은 민간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활용되는 지방기록물은 지방자치단체인 각(시·도·군·구)청, 시·도 교육청 및 지역 교육청 등과 학교 중 국립·공립대학 등에서 생산·접수되기도 하는데 이런 기록물을 지방공공기록물이라 한다. 그리고 지방의 공공기관이 아닌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물은 지방민간기록물이라 칭하고 있다. 이런 기록물들은 지방학생들의 향토사 교육에 이용되어 후손들에게 지방의 역사와 문화를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기록물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는 기록을 통해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정체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지방에서의 기록관리란 지방에서 생산되고 수집된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정리·이관·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하여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서한글 2012).

지방기록물 중 향토문화자료는 지역민의 삶이 반영된 역사적 가치를 지니며 훗날 지역연구의 자료로 제공되어 학술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지방기록물(향토문화자료)을 수집·보존·활용하게 되면 해당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고, 지역의 기록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기록물 관리법에서도 지방기록물 중 향토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 제11조 5항을 통해 지방기록물 관리 업무를 맡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관할 공공기관과 관련된 향토자료를 수집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 2.2.2 향토문화자료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행정적,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지방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영학(2010)의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의 지방기록물들이 제대로 생산 및 관리·공개 되지 못하고 있던 문제를 지적하였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문서고는 시설이 미비하고 인력도 부족하여 지방기록물을 보존·관리할 수 없었으며, 기록물의 공개를 통한 활용은 생각할 수도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2000년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준영구와 영구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 보존하지 못하였고, 총무처(현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부기록보존소(현 국가기록원)로 이관해야 했다. 이렇게 이관 받은 2000년 12월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영구문서는 약 21만권으로 법규성 문서, 증빙성 문서, 정책성 문서, 기타 4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증빙성 문서가 대다수였고(전라북도의 사례, 약 73%), 정책성 문서가 매우 적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이나 집행 과정을 알기가 힘들었다고 하여 지방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지방 기록관리의 체계화는 행정의 효율성, 행정의 책임성, 행정의 투명성의 제고뿐만이 아니라 지방의 특성과 역사, 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 지방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민간기록이나 역사기록을 수집하고 관리하며 연구자와 주민들에게 제공될 때 지방의 정체성이 제고되고, 주민들은 자기 고장을 이해하여 애郷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되어 지방의 행정기록과 지방의 역사기록 및 문화기록을 수집하여 정리하고 공개하여 지방민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 지역의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를 자기 지역 내의 전문가나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이영학 2010).

박성애(2007)의 연구 또한 역사차원에서 기록물관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공기록의 수집·관리·편찬은 역사에 대한 국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 역사지식 역량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후대에 당대의 역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행보라고 하였다. 특히 공공기록물은 역사적으로 공적인 증빙의 기능, 국가운영의 효율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역사의 진실성 규명 등으로 주로 활용되며 지방에서 이런 기능을 행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지방기록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영학과 박성애의 연구를 보면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인 향토문화자료가 지역에 대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 운영의 효율화, 투명성 확보, 역사적 진실 규명의 가치를 지니게 해주는 중요한 자료임을 강조하였다.

서한글(2012)의 연구에서는 기록물관리법의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밝힌 특징 중에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늘어날수록 지방기록물의 관리가 중요하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방기록물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이는 지방자치를 행하는 행정기관 중심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주체로 한 지방기록물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의 특징과 더불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중 지역사회 기록물 관리의 총체적 중심역할 수행에 관한 역할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역 기록물관리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하였으며, 지역민을 위한 교육·보급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센터로서의 역할 수행과 전문적 지역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기관의 역할 수행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지역민들을 위해 향토문화자료를 여러 방식으로 제공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김희용의 연구에서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 중에는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민간기록물을 수집·보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밝히며 민간기록물 중 지역의 역사와 문화 보존에 큰 가치를 지니는 향토문화자료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수집·보관하고 더불어 관리 업무를 맡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 연구에서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또 다른 역할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연구자의 연구지원 등 지역사회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지니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자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인 지역 기록물을 수집·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향토문화자료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보존이라는 보존적 측면뿐만이 아닌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향토문화자료를 수집·보관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김희용 2018).

## 2.3 지방기록관리 기관의 향토문화자료 온라인서비스 사례

### 1)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California State Archives)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은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기록을 수집 및 보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의 메뉴 중 California Digital Archives를 통해 캘리포니아와 관련된 근현대사의 다양한 분야의 기록을 사진이나 상표 등과 함께 설명을 첨부하여 제공하고 있다(심가영 2010). 또한 California Audio Visual Preservation Program(CAVPP)를 운영하여 108개의 도서관과 기록관, 박물관과 협력하여 캘리포니아 관련 시청각 자료들을 디지털화 하고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AVPP 외의 온라인서비스로는 Online Archives of California(OAC)와 'Browse by Collection'이 있다. OAC는 캘리포니아 전역의 200개가 넘는 도서관, 특별 소장품, 기록관, 박물관에서 유지 관리되는 1차 자료(삽화, 원고, 논문, 역사 사진 등)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무료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캘리포니아 주의 지도를 통해 기부 기관(협력 기관)의 위치 정보와 기부 기관의 자료 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Browse by Collection' 항목은 레코드 그룹 및 컬렉션 목록을 제공하며 자료가 기록관으로 이전되기 이전 부서나 위원회, 입법자로 보고자 할 때 유용하게 이용된다.



<그림 1>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의 California Digital Archives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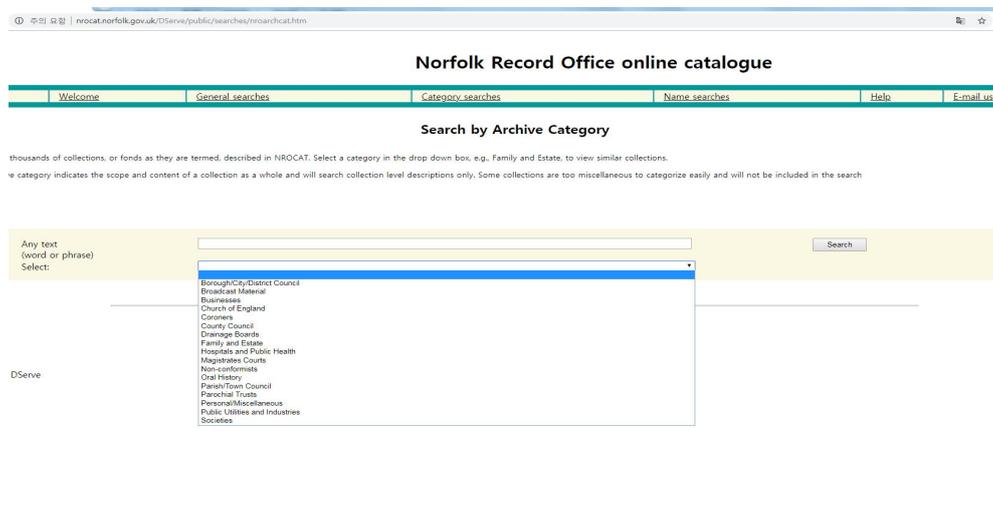
## 2) 영국 노퍽 기록관(Norfolk Record Office)

노퍽 기록관은 노퍽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을 수집하여 보존하여, 그 기록들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노퍽 기록관은 원래 노리치(Norwich)시에 의해 운영되던 노리치 공공도서관(Norwich Public Library)이었으며 이곳에서 노리치 시와 관련된 기록을 수집 및 관리를 하였고, 1974년 노퍽 의회에서 운영을 맡게 되었다. 노퍽 기록관은 지방기록관으로서는 영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자료를 소유한 곳으로 알려져 있고, 1,100만 여 점의 기록물을 소유하고 있다. 소장 기록들은 지방 정부와 그 전 정부들의 기록물, 노퍽 공공기록물, 노리치 교구의 기록을 포함한 교회기록, 기업기록 등을 소장하고 있다(심가영 2010).

노퍽 기록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노퍽기록관과 킹스 린 보로 기록 보관소 및 노퍽 사운드 보관소의 목록에 있는 소장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카테고리 검색을 통해 ‘영국 잉글랜드 교회’, ‘지도’, ‘유언 및 기타 유언 검인 기록’, ‘아카이브 카테고리’, ‘미군 육군 공군 제 2항공 부문 기념 도서관 아카이브(United States Army Air Force 2nd Air Division Memorial Library Archive)’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중 ‘영국 잉글랜드 교회’는 노리치 내 교회들을 포함한 교구별로 컬렉션이 구성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교회에 등록된 교구 기록들(세례, 결혼, 묘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아카이브 카테고리’의 경우 17개의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중 사업 기록, 교회 기록, 부동산 기록, 병원 기록 등 향토자료와 연관된 기록 항목을 이용하여 향토자료를 찾을 수 있다. 카테고리 검색 외에도 노퍽기록관에 기록을 생산하거나 축적한 개인, 가족 및 조직의 이름을 표준화하여 이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많은 기록물을 등록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등록한 기록물을 찾고자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그림 2> 노퍽기록관의 ‘Search NROCAT’ 메뉴 중 아카이브 카테고리 검색 모습

### 3) 캐나다 온타리오 주립기록관(Archives of Ontario)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은 온타리오 지역의 향토자료를 온라인서비스 하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이 기록관은 ‘온타리오인들의 조상, 온타리오 지역, 온타리오의 정부와 연결시킨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온타리오 지역과 역사연구를 위한 다양한 기록물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기록관은 18세기부터의 온타리오 주의 기록들을 수집하여 많은 양을 소장하고 있고, 정부기록물과 개인 기록물, 원주민 기록,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 기록, 지도, 건축도면, 사진, 예술 자료, 시청각 매체 등을 관리하고 있다. 도서관과 연계하고 있어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각종 도서, 정부간행물, 잡지, 팜플렛 등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제에 맞는 도서관 자료들의 목록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심가영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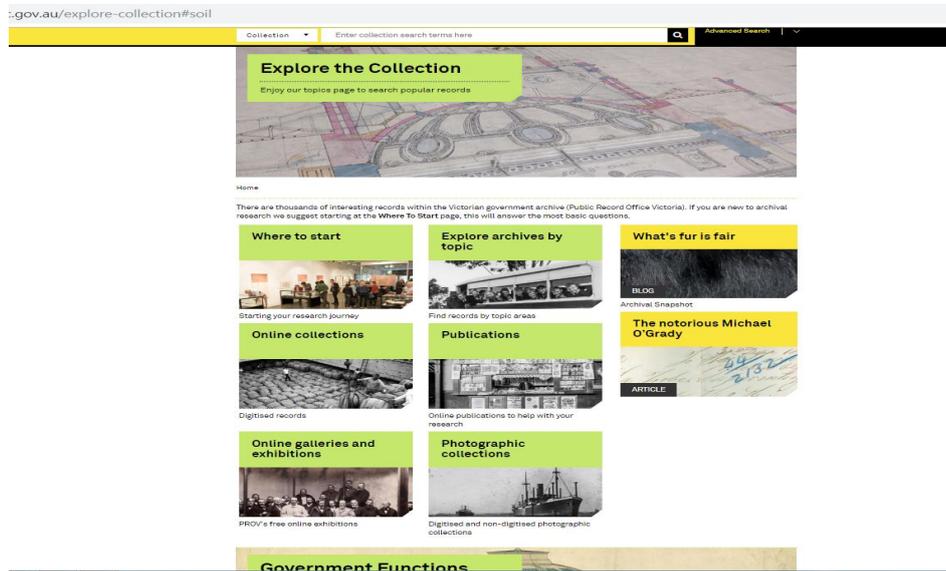
온타리오 아카이브는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여러 가지 조사 도구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카탈로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다.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 온타리오주의 주민들의 ‘족보’를 추적할 수 있게 도와주는 ‘Tracing Your Family History’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항목은 이용자가 자신의 조상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방법을 제안하고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용자의 집에 있는 옛 앨범이나 결혼, 출생 및 사망 신고서 등 오래된 자료를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이 소장 중인 마이클로 필름 등과 비교하거나 출생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안내, 온타리오 계보 학회가 작성한 공동 묘지 및 출생, 결혼 및 사망 기록 등(출생서, 결혼신고서, 사망신고서 등)을 받아 검색해 주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의 ‘족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도우며 향토자료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림 3> 캐나다 온타리온 주립기록관의 Online Status Inquiry 화면

#### 4) 호주 빅토리아 주립기록관(Public Record Office Victoria)

빅토리아 주립기록관은 빅토리아 주정부의 아카이브로 빅토리아 지역민들과 정부의 이용을 위해 기록을 관리하며 전자기록을 장기보존하기 위한 빅토리아 전자기록물 보존 전략: Victorian Electronic Records Strategy (VERS)을 개발하였고, 기록 이용 서비스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심가영 2010).

빅토리아 주립기록관의 홈페이지에서는 영국 노퍽 기록관의 유연 검색과 캐나다 온타리오 주립기록관의 가족 역사 찾기 기능과 유사한 방식으로 아카이브 탐색이 가능하다. 주제들은 ‘유언과 증언’, ‘가족 역사’, ‘승객 기록과 이민 기록’, ‘토지 및 부동산 조사 기록’, ‘집 조사 기록’ 등 개인 혹은 가문의 역사를 찾아 볼 수 있는 주제부터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멜버른 시’, ‘선거 및 유권자 룰’, ‘건강과 복지’, ‘정의, 범죄 및 법률’ 등의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를 브라우징하면서 다양한 주제의 아카이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림 4> 호주 빅토리아 주립 기록관의 'Explore the Collection' 화면

### 3. 제주 향토문화자료 현황 조사

#### 3.1 제주도청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현황

##### 3.1.1 탐라기록관리소

###### 1) 기관현황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 도와 시·군에 자료관을 설치하여 이곳에서 공공기록물 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었으며, 기록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준영구 이상의 중요 기록물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시켜 관리를 수행하였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 하면서 투명성과 책임감을 지닌 행정 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방안과 효율적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고영순 2011). 이에 따라 제주도는 ‘탐라기록물관리소’를 정식직제로 신설하였고 행정·사서·학예연구사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도내 공공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다양한 기록정보 서비스를 도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후 2008년 3월 명칭을 ‘탐라기록관리소’로 변경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기록물만이 아닌 민간역사기록물을 수집하는 업무도 시작하였다.

제주도청의 탐라기록관리소는 제주의 공공기관에서 다루는 공공기록과 민간기록을 수집하는 부서로서 향토문화자료를 내부 정책에 따라 수집하도록 되어있다. 조사에 따르면 탐라기록관리소는 2018년 기준으로 1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은 탐라기록관리소라는 독립된 기관이나 부서가 아닌 제주도청의 총무과에 속해있으며, 기록관리 전문요원 자격증을 지닌 인원은 1명인 상태이다. 독립된 기관이나 부서가 아니고 전문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탐라기록관리소는 향토문화자료의 수집 및 제공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홈페이지에 명시된 업무들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나아가 향토문화자료의 온라인서비스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 2) 자료 수집관리

탐라기록관리소는 특별자치도 시행 이전 제주도와 시·군 및 7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에 따라 이들 기관에서 생산된 상징물·집기류·관인류·현판류 등의 행정박물을 인수하여 보존·관리하고 있다. 탐라기록관리소는 준영구 이상의 중요 기록물의 DB구축사업을 추진하여 정보공개 등을 이용하여 도민들이 열람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재정에 따라 행정박물의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과거 대통령이 활용하던 시설·집기 등을 영구히 보존·관리하기 위해 ‘행정박물’로 지정하고 관리하였다. 이에 제주도는 행정적·역사적·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행정박물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존하기 위해 2007년 11월 초에 지방기록물관리소 설치·운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고영순 2011).

탐라기록관리소는 도내 각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박물 3,759점과 개인 소장품 127점을 행정박물로 지정해 행정박물 보존실에 관리하고 공관 내에 산재해 있던 대통령 관련 박물 90여점을 행정박물로 등록·지정하고 행정적·역사적 증거로 특별히 보존 관리하고 있다.

2018년 4월 기준으로 비전자기록물을 약 11만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소장 자료를 DB화시키고, 이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다음 표는 탐라기록관리소의 비전자기록물에 대한 현황이자 향후 DB화 해 나가야 할 대상이다.

<표 3> 탐라기록관리소 비전자기록물 현황(2018년 4월 기준)

(단위: 권)

유형	계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계	112,064	69,060			43,004			
		35,647	30,642	2,771	15,397	25,049	2,375	183
일반문서	87,516	15,344	29,007	2,626	13,008	24,980	2,368	183
카드	132	15	116	1				
도면	1,979	331	1,416	67	134	31		
시청각	14,466	11,986	103	77	2,255	38	7	
행정박물	4,447	4,447						
민간기록물	3,524	3,524						

### 3) 서비스

조사에 따르면 탐라기록관리소는 기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용은 크게 공공기록물관리 업무, 민간기록물관리 업무, 종합자료센터운영의 업무로 나누어지며 이 중 민간기록물관리 업무가 향토문화자료와 관련되어있다.

탐라기록관리소의 민간기록물관리 업무로는 제주 고유의 민속·언어·신앙·구술 및 전적류 등의 민간기록물 수집·관리하는 업무와 민간소장 근현대 역사기록물 수집 및 관리, 민간소장 향토자료, 근현대 기록물 기증 및 활용 업무가 있다.

#### 3.1.2 문화정책과(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 1) 기관현황

제주도청 산하에서 제주도의 각종 문화정책, 문화산업, 문화예술 등을 관리하는 문화정책과는 2006년부터 전문가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제주도에 관한 설명과 관련 향토문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자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

광 대사전 사이트를 구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2006년부터 구축한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은 2006~2008년까지는 독립된 사이트로 개설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의 상위 항목인 ‘분야별 정보’ 중 ‘문화/역사’ 하위 항목에 편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 2) 자료 수집관리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은 제주의 민속 문화를 다루는 향토문화 자료에 대한 전자책과 사진, 동영상, 그래픽, 애니메이션 등을 구축하고 제주 속담과 제주방언에 대한 사전 등을 추가 구축하고 있으며 제주도가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제주도의 역사, 문화, 사회, 자연, 관광분야의 향토문화 자료를 다루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제주도의 의식주, 통과례, 세시풍속, 민속놀이, 생산기술, 민속공예, 민구, 민간신앙, 무속, 방언, 민요, 신화, 전설, 속담을 다루고 있다(김하나 2007).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을 구성하는 온라인 콘텐츠는 다음과 같다.

### ① 제주설화

1950년대부터 2016년까지 발간된 제주 설화 자료(개인 저서, 읍·면지, 마을지, 국문학보, 백록어문, 공공기관 저작물 등)들을 수집하여 목록을 작성한 콘텐츠이다. 이 콘텐츠는 ‘제주문화원형/설화’, ‘설화관련도서’,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설화’, ‘설화 전체 목록’이라는 5가지의 하위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제주문화원형/설화’는 제주 설화 4,590편의 전체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 4회에 걸쳐 연구진의 협의를 실시하여, 최종 선정된 269편은 해당 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고 있는 원문과 해제, 현지조사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 제주문화원형/설화편 소장 자료 현황

(단위: 건)

대분류	중분류	건
신화	원문	85
	해제	85
	현지조사	12
전설	원문	171
	해제	152
	현지조사	177
민담	원문	13
	해제	13
	현지조사	68
	총건	776

각 편에 대한 해제들은 해당 설화의 줄거리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특징을 서술하여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설화마다 이용자가 충분히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핵심어를 뽑아 반영하였으며, 원전 서지사항과 제목과 내용이 유사한 설화를 중심으로 관련 자료도 함께 게재하였다. ‘설화관련도서’에서는 총 156권의 설화관련도서들의 저자, 서명, 출판사/발행처, 연도를 기재한 목록을 제공하였다.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설화’의 경우 총 15개의 설화를 홈페이지에서 재생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과 해당 애니메이션 내용을 텍스트로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다. ‘설화전체목록’은 4,590편의 제주설화들의 목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목, 서명, 저자, 연도, 출판사/발행처로 구성되어 있다.

## ②제주의 문화재

제주도에 존재하는 13 종류의 문화재(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중요민속자료, 중요무형문화재 등)에 관한 설명과 세부사항 및 문화재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 사진의 경우 보통 jpg 형식의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나 pdf나 gif 형식의 파일로도 올라왔으며, 문화재 사진 중에는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다. 향토문화자료가 있는(무형문화재의 경우 살고 있는) 장소를 구글 맵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전체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5> 제주의 문화재 자료 현황

(단위: 건)

제주의 문화재			
종류	건	종류	건
보물	5	유형문화재	29
사적	6	무형문화재	15
천연기념물	37	기념물	97
명승	9	민속문화재	10
중요 무형문화재	5	문화재 자료	7
등록문화재	18	문화재 주변 행위기준	105
총합	361		

③ 제주역사

‘제주역사’ 콘텐츠는 ‘제주의역사’, ‘시대별 제주역사’, ‘역사인물’, ‘항몽’, ‘항일’의 하위 주제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하위 주제들에 대한 설명과 관련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의역사’에서는 ‘제주 100년 사진열람’이라는 하위 항목을 통해 100년 전 사진과 설명 60건이 실려 있었고, ‘역사 인물’ 항목은 총 679명의 인물에 대해 검색이 가능하다.

<표 6> 제주역사 자료 현황

(단위: 건)

제주역사	
제주 100년 사진 열람	60
역사 인물	679
총합	739

④ 민속문화

‘민속문화’ 콘텐츠는 제주만의 민속문화(의식주문화, 신앙문화, 삼다문화)와 제주민요, 민속/풍물에 관한 설명과 사진, 동영상 등을 서비스하는 하위 항목으로 민속 문화와 관련된 향토문화자료의 설명과 사진, 음성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표 7> 민속문화 자료 현황

(단위: 건)

	종류	건	비고
의식주 문화	의복문화	7	
	음식문화	14	3건 사진 무
	주거문화	5	1건 사진 무 1건 사진 4
삼다의 명소	둘의 명소	21	
	바람의 명소	8	
	여성의 명소	5	
삼다갤러리	사진	277	
	동영상+텍스트	54	
제주민요	농업노동요	8	오디오, 다운로드 없음 3
	어업노동요	4	오디오, 다운로드 없음1 VOD 다운로드 1
	제분노동요	3	오디오, 다운로드 없음1 VOD 다운로드 1
	임업노동요	5	오디오, 다운로드 없음1 VOD 다운로드 4
	관망요	3	오디오, 다운로드 없음 2
	잡역요	10	오디오, 다운로드 없음5 VOD 다운로드 2
	의식요	9	오디오, 다운로드 없음1 VOD 다운로드 2
	창민요	13	오디오, 다운로드 없음 1 VOD 다운로드 7
	랩 민요	4	
총건		450	

⑤제주방언

제주방언연구회에서 정한 제주어 표기법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흔히 쓰이는 생활 방언과 대한 방언 뜻풀이와 표준어, 제주방언, 고어, 녹음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제주의 속담과 제주와 관련된 색인어를 검색할 수 있다.

<표 8> 제주방언 자료 현황

(단위: 건)

	종류	건
생활방언	인사말	11
	일상대화	37
	결혼	15
	관광	10
	철학	12
	민요	7
	기타	8
방언사전		1,496
속담사전		868
선외속담		423
색인어사전		1,109
총합		3,996

⑥문화예술

제주도 내 문화기반 시설의 총괄표와 문화기반 시설 현황에 대해 게재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에 대한 설명과 역대 문화상 수상자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제주도 내 특화거리의 소개와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화거리는 8곳을 선정하여 해당 거리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게재했으며 역대 수상자들의 경우 수상자 88명이 사이트에 실려 있다.

⑦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검색’과 ‘상세 검색’, ‘장릉속민속자료’라는 3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콘텐츠 검색의 경우 19개의 디렉토리(역사, 문화, 관광, 자연, 사회, 의식주, 통과례, 세시풍속, 민속놀이, 생산기술, 민속공예, 민구, 민간신앙, 무속, 방언, 민요, 신화/전설, 속담, 기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검색에서는 디렉토리를 선택하고 각 항목 당 2~6가지의 하위 항목 중 몇 가지를 선택하여 해당하는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으며 총 5,861건이 등록되어 있다. 디지털콘텐츠의 또 다른 하위 항목인 ‘장릉속민속자료’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동안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지원을 받아

제주의 관한 모든 저서, 논문, 영상, 사진, 녹음자료를 제주의 민속 문화 DB 구축사업을 통해 진행되었던 자료 중 온라인 등록으로 등록된 사진자료들이 다. 총 69개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표 9> 디지털 콘텐츠 자료 현황

(단위: 건)

종류	역사	문화	관광	자연	사회	의식주	통과의례	세시풍속	민속놀이	생산기술
건	451	353	914	569	553	760	88	129	53	199
종류	민속공예	민구	민간신앙	무속	방언	민요	신화/전설	속담	기타	총합
건	135	284	267	315	81	125	182	32	371	5,861

### 3) 서비스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은 향토문화자료의 이름이나 제목을 올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에 따라 이미지 또는 동영상, 음성자료 등을 같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향토문화자료에 대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는 주로 jpg 형식으로 제공하며 동영상과 음성자료는 Adobe Flash Player를 이용하여 홈페이지에서 재생할 수 있다. 이미지, 동영상, 음성자료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을 경우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다.

## 3.2 제주 박물관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현황

### 3.2.1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1) 기관현황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84년 국내 유일의 민속자연사 박물관으로 설립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화산폭발로 탄생한 섬이라는 점에서 대륙과 다른 생성과정과 다른 생활상으로 인해 제주만의 독특한 민속 유물과 자연사적 자료가 생겨났고, 이를 수집·보전하여 후대에 넘겨주고자 하였다. 또한 인터뷰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민속과 자연사를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였다.

#### 2) 자료 수집관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향토문화자료 중 ‘민속’과 ‘자연 환경’을 주제로 한 자료를 다루고 있고 자료들은 주로 행정박물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외에도 고서,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음성 파일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향토문화자료 중 민속사 관련 자료는 내부 논의나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수집 혹은 구입 유물을 결정하고 결정된 자료를 기증 및 기탁, 구입을 통해 수집한다. 자연사 관련 자료는 자체적으로 채집하고 전시하고 있다. 자료들은 제주도의 탄생부터 근·현대사까지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자료의 총 수량은 제주도청 통계 상 총 37,581점이며<sup>3)</sup> 자료들을 DB화 시키고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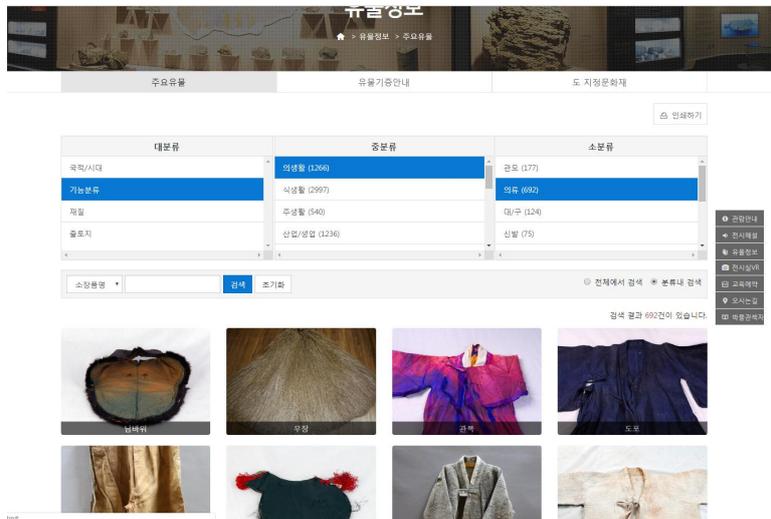
3) 제주도 내 박물관은 매해 제주 도청에 소장 유물의 수량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 3) 서비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오프라인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로 나누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오프라인서비스는 유물 전시, 체험 프로그램 실시, 교육행사, 열람 신청 시 수장고 유물의 관람 및 촬영허가 등 오프라인 상에서의 업무를 통해 향토문화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전시실 별 유물 안내’와 ‘주요 유물 검색’을 통해 향토문화자료를 제공한다. ‘전시실 별 유물 안내’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전시실 별로 유물을 나누어 사진 자료와 유물의 설명을 볼 수 있고 ‘주요 유물 검색’은 대분류·중분류·소분류까지 검색이 가능하며 ‘국적/시대’, ‘기능분류’, ‘재질’, ‘출토지’에 따라 대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그림 5>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 유물 검색’ 화면

## 3.2.2 국립제주박물관

### 1) 기관현황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유물을 수집·보존하는 한편, 체계적인 전시와 학술조사·연구를 목적으로 2001년 6월 15일에 개관하였다. 인터뷰에 따르면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 박물관들 중 제주 고고학과 문화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문화재를 주로 전시하는 박물관이자 제주와 세계의 섬 문화들과 관련된 유물들을 비교하며 제주 섬 문화의 정체성과 특징을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 2) 자료 수집관리

조사 결과 국립제주박물관은 향토문화자료 중 ‘역사’와 ‘민속’과 관련된 자료를 다루고 있으며 자료들은 행정박물관이 주를 이루고 행정박물관 외에도 사진 자료나 고문서, 동영상, 음성 파일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료의 수집은 기증, 기탁, 구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기증은 개인들에게 주로 자료를 받으며 기증자의 이름을 박물관 전시관에 명시하고, 개인이 많은 향토문화 자료를 기증할 경우 특별 전시전을 개최하기도 한다. 구입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 후 예산을 받고 구입을 진행한다. 향토문화자료들은 수집정책에 따라 제주의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자료와 유물을 위주로 수집하고 있다. 수집하는 향토문화자료 중 민속과 관련된 자료의 경우에는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하지는 않고 있다.

현재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 도청 통계 기준 26793점의 유물을 지니고 있다.

### 3) 서비스

조사결과 국립제주박물관은 오프라인서비스와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향토

문화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오프라인서비스는 상설 전시관을 이용한 상설 전시와 특별 테마 기획전 개최를 기본 서비스로 실시하며 이 외에도 학생용 활동지의 제작 및 배포,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만들기 대회 실시, 박물관 초청,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 여러 형식의 오프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온라인서비스는 상설관별 유물 전시와 특별 전시, 야외 전시, ‘vr체험관’을 통한 ‘삼별초와 동아시아’ 전시실의 vr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소장 자료 검색을 통해 전시 중인 대표 유물 30점을 볼 수 있다. 대표 유물 외의 자료는 상세검색을 통해 ‘국적’, ‘소장구분’, ‘용도/기능분류’, ‘재질’, ‘지정문화재’로 나누어 검색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소장품의 복제를<sup>4)</sup>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위에서 설명한 서비스 외에도 홍보동영상 제작, 박물관내 방영, 박물관 도서실 개방 등의 방식으로 국립제주박물관은 제주도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향토문화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 3.2.3 제주대학교 박물관

#### 1) 기관현황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1967년 3월 제주대학교 부속 민속박물관으로 개관하여 1985년 6월 제주대학교 박물관으로 개편, 종합박물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개관 이래 민속자료 수집 및 각종 유물 발굴과 문화유적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제주도를 비롯하여 국내외 고고, 미술, 역사, 민속, 인류학 분야의 자료를 수집·전시·보존하여 학술연구에 공헌하고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민속박물관으로 출발하였으나 이후 고고학과 민속학, 제주 자연사와 관련된 유물들

---

4) 유물의 직접 촬영·실측 및 모사·사진 자료 이용을 의미. 복제 신청이 허가될 경우 실제 유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실측, 모사 등을 할 수 있다.

을 모두 아우르는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발전하였다고 한다.

## 2) 자료 수집관리

조사에 따르면 제주대학교 박물관 자료 유형은 주로 행정박물이며 이외에도 고문헌, 사진 자료, 동영상 등의 자료가 있다. 자료의 수집은 기증, 기탁, 구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2015~2016년 구입 예산이 완전히 사라져 기증만을 받게 되었다. 향토문화자료는 수집정책을 바탕으로 제주지역 문화재목록 중 박물관에 없는 자료를 위주로 수집하게 되었으며 예산 문제 상 없어서 가거나 보호해야 할 자료를 1년에 몇 점, 특정한 종류만을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된 자료의 총 수량은 6,645건이다.

## 3) 서비스

제주대학교 박물관의 향토문화자료 제공을 위한 오프라인서비스와 온라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오프라인서비스는 상설 전시관을 통한 유물전시를 실시하며 1~2년 단위로 전시 자료와 수장고의 자료를 교체하여 전시하고 있다. 또한 도록 제작, 신청 시 관람 설명 및 교육 등의 체험프로그램 실시, 시청과의 협력을 통한 문화강좌 실시, 제주 관련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하여 제주의 향토문화자료를 알리고 있다.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중인 온라인서비스는 전시관별 유물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상설전시'와 소장 유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시스템이 있다. 소장 유물은 제주대학교 박물관이 정한 3가지 테마('제주의 바다', '제주의 땅', '제주의 사람')로 나뉘어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대표 유물만을 업데이트하였기에 모든 자료를 검색할 수는 없다. 또한 인터뷰에 따르면 국립제주박물관과 협력하여 자료 공유목록 제작을 시도 중이라고 한다.

### 3.2.4 제주추사관

#### 1) 기관현황

조선 후기 대학자이자 예술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의 삶과 학문, 예술세계를 기리기 위해 추사유물전시관이 1984년에 지어져 있었으나, 2007년 10월 추사유배지가 국가지정문화제로 승격되면서 격에 걸맞게 전시관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 결과 2010년 5월 제주추사관이 건립되어 추사와 김정희 선생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전시 업무를 수행하는 박물관이자 유적 전시관인 제주추사관이 설립되었다.

#### 2) 자료 수집관리

제주추사관이 수집하는 자료는 부국문화재단, 추사동호회 등에서 기증한 예산김정희종가유물, 추사 현판 글씨, 추사 편지 글씨, 추사 지인의 편지 글씨 등 추사 선생과 관련되었거나 대정지역과 관련된 고문헌과 행정박물 등이다. 대정 지역은 조선시대 때 관청이 있어 관련 문헌들이 있기에 같이 수집하고 있다고 담당자가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 주로 기증과 구입의 방법을 쓰고 있으며, 기탁의 경우 기탁 받은 자료를 원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보존처리 등 추가 예산이 들기 때문에 많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 자료의 총 수량은 137점이다.

#### 3) 서비스

제주추사관은 박물관 및 기획전 등으로 추사 선생의 작품과 관련 소장품을 전시하는 오프라인서비스와 제주추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소장 자료의 사진과 설명을 볼 수 있는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향토문화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아직 DB 구축이 완료되지 않아 소장품을 홈페이지에 전부 올리지는 못하고 있다.

### 3.3 제주 공공도서관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현황

박물관에 비해 향토문화자료의 수집 규모나 종류가 적지만 공공도서관도 향토문화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수집된 자료는 관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고 이용하는 인원도 적어 다른 주제의 자료들보다 이용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수집 예산이 매우 적어 박물관에 비해 수집과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 공공도서관들은 수집한 향토문화자료를 제대로 분류하거나 수량 파악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기관이 많았으며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는 정책을 지닌 도서관은 15곳 중 단 한 곳으로 나타나는 등 향토문화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면 향토자료실이 형식적으로나마 구분되어 있는 도서관은 15개의 도서관 중 5개이지만 실제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현황파악이 가능한 도서관은 3개관이어서 이를 대상으로 상세 조사를 하였다. 담당자와 인터뷰가 불가하였던 도서관은 다른 자료실과 통합되어 다른 주제의 자료와 같이 관리되고 있어 향토문화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제주 공공도서관들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장중인 자료들은 통합검색이 가능하지만, 이는 단순 제주 공공도서관 내 모든 자료들을 통합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향토문화자료만 구별하여 검색이 가능하지 않아 향토문화자료를 찾는 이용자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표 10> 제주 공공도서관 향토자료실 및 수집 정책 여부

이름	향토자료실 여부	향토 자료 수집 정책 여부
한라도서관	o	o
우당도서관	x	x
탐라도서관	x	x
제주 기적의도서관	x	x
애월도서관	o	x
조천읍도서관	x	x
한경도서관	x	x
삼매봉도서관	o	x (장서 확보 계획 수립 때 기준을 세워두는 정도)
중앙도서관	x	x
동부도서관	o	x
서부도서관	x	x
서귀포 기적의도서관	x	x
성산일출도서관	x	x
안덕산방도서관	△ (지금은 다른 자료실과 통합됨)	x
표선도서관	x	x

### 3.3.1 한라도서관

#### 1) 기관현황

2008년 11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남로 오라2동에서 개관하였으며 개관과 동시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인터뷰에 따르면 제주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제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제주발행 자료의 납본 및 보존과 지역자료 수집에 주력하는 도서관이라고 한다.

#### 2) 자료 수집관리

수집하는 향토문화자료로는 제주와 관련하여 발행된 도서와 제주작가의 작품을 주로 수집하며 즉시 구입을 원칙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또한 역대표도서관으로의 납본 의무화 되어 있는 자료는 매년 공문서 발송 등을 통해 지속 수집하고 지역자료의 소장 정보원을 찾아 기증을 유도한다.

총 장서 현황은 285,564권이지만 향토문화자료를 따로 구분하여 통계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고 실제 향토자료실의 자료배치도 유동적이었다.

### 3) 서비스

향토문화자료는 오프라인서비스만 제공되고 있으며 향토문화자료 온라인 서비스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관내 열람만 가능하고 대출은 불가하지만, 구입되는 제주관련 자료를 구분하여 제주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경우 제한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기도 한다.

## 3.3.2 삼매봉도서관

### 1) 기관현황

198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현재 남성중로)에 문예회관으로 개관, 28년 뒤 삼매봉도서관으로 개칭하였다. 제주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도서관이다.

### 2) 자료 수집관리

인터뷰에 따르면 제주 관련 향토문화자료 중 삼매봉 도서관에 없는 자료를 위주로 기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구입은 예산이 부족하여 진행하지 않는다. 104,440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향토문화자료를 따로 구분하여 구매하고 있지 않고 기증 자료에서도 향토자료를 구분하지 않고 있었다.

### 3) 서비스

오직 오프라인서비스를 통해서 향토문화자료를 제공하며 온라인서비스는 실행하고 있지 않다. 오프라인서비스는 이용자의 요청 시 향토자료실을 개

방하여 향토자료실 내에서만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 대출은 불가하다.

### 3.3.3 동부도서관

#### 1) 기관현황

2000년 9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호동(현재 일주동로)에서 개관하였으며 향토문화자료 중 오직 제주관련 향토문화자료만을 수집하는 도서관이다.

#### 2) 자료 수집관리

제주 관련 향토문화자료만을 수집하며 수집 방법은 비매품인 향토문화자료들을 기증을 받는다. 70,379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고 향토문화자료의 가격이 비싸고 관련 예산이 없어 구매에 의한 자료 수집은 수행되고 있지 않았다.

#### 3) 서비스

소장 향토문화자료를 관내 열람만 가능하고 대출은 불가하다. 하지만 자료 복사를 신청할 경우 자료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향토문화자료를 온라인서비스로 제공하지는 않지만 찾고자하는 향토문화자료가 있고 해당 자료의 서명을 알고 있다면 다른 도서관들과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동부 도서관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 3.4 제주 연구소의 향토문화자료 관리 현황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다루는 연구소는 제주학연구센터가 핵심 기관이어서 제주학연구센터의 자료현황을 조사하였다.

#### 1) 기관현황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도의 지방행정과 관련되는 제도개선 등 제반과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분석활동을 하는 제주연구원이 제주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2011년 8월 설립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운영의 4원칙을 주장하며 전국·세계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제주학 지향과 민간 연구단체 및 연구자 중심의 제주학 플랫폼 구축을 주장하며 향토문화자료를 통합 온라인서비스하는 플랫폼인 ‘제주학아카이브’를 2014년에 개설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설립하였지만 담당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제주학을 연구하기보다는 도민들이 쉽게 제주학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우기 위한 곳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제주학아카이브)를 만들자고 생각하여 당시 센터장과 동료들과 함께 만들기 시작하였다. 제주학아카이브는 제주학과 연관된 서적, 제주 향토문화자료와 관련된 박물관들의 소장 자료의 사진, 제주학 연구기관들의 연구 보고서 등 제주학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 하고자 하였으나 각 기관별 사정으로 인하여 자료 수집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학연구센터의 향토문화자료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제주학아카이브 시스템 관리 운영과 제주학 관련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 자료 수집관리

제주학과 관련된 자료들을 주로 수집하고 있다. 자료들은 지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소 22곳, 언어를 연구하는 연구소 3곳, 도내 제주학 관련 연구소 22곳까지 총 47곳의 연구소와 문화센터, 박물관, 학회,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타 기관으로부터 먼저 기증을 받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받아오고, 받은 자료들을 통합하여 통합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통합 아카이브인 제주학아카이브의 상단 메뉴 중 ‘오픈아카이브’를 통해 연구자들에게 자료 기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등의 문제나 협력 거부로 없는 자료도 많다.

2018년 11월을 기준으로 총 47,261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분야와 유형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있다.

①분야별정보

KDC의 분류법을 기준으로 제주학연구센터의 자료들을 분류하고 있다. ‘역사’와 ‘사회과학’ 주제를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으며 그 중 제주사와 문화의 자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 제주학연구센터 KDC 분류에 따른 자료 현황  
(단위: 건)

분야별 분류			
총류	188	제주학	131
		연보	8
		학술조사	33
		기타	16
철학		8	
종교	2,259	무속	2,218
		기타	29
		불교	11
사회과학	10,398	여성	1,580
		문화	2,614
		민속	663
		사회	2,409
		교육	685

		행정·법	784
		관광	635
		경제	751
		정치	268
		기타	9
순수과학	3,919	동물	652
		식물	701
		환경	832
		해양	1,287
		지질	434
		기타	13
기술과학	2,822	의,식,주	945
		건축	149
		농축업	537
		수산업	314
		의학	313
		산업	552
		기타	12
예술	957	음악	810
		미술	75
		기타	72
언어	424	제주어	417
		기타	7
문학	928	구비문학	817
		현대문학	34
		기타	77
역사	25,358	고고	395
		지리	59
		제주사 일반	23,745
		사회	109
		문화	670
		4.3(사삼운동)	67
		인물	247
		항일운동	25
기타	41		
총합			47,261

## ② 유형별정보

제주학 연구센터의 자료들을 자료의 매체에 따라 분류하였다. 제주학 관련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을 묶어서 '제주학 DB'로 전거하였다. 자료는 사진 자료가 가장 많았으며, 해외문헌과 고지도 자료가 가장 적었다.

<표 12> 유형별 정보 현황

(단위: 건)

유형별 분류	제주학 DB (논문, 보고서, 단행본 등)	고문헌	해외 문헌	고지도	사진	동영상	구술 (음성)	신문 기사	총합
	9,940	120	7	8	10,447	1,316	820	5,118	27,776

### 3) 서비스

현재는 제주학아카이브를 통해 도민들이 가진 사진이나 연구물들을 디지털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여 향토문화자료를 온라인서비스 하고 있다.

제주학아카이브는 ‘분야별정보’, ‘유형별정보’, ‘제주어자료실’, ‘지식네트워크’, ‘오픈아카이브’의 항목으로 나누어진다. ‘분야별정보’의 경우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한국십진분류법(KDC)’를 인용하여 해당 주제에 따라 자료들을 분류해 놓고 검색할 수 있다. ‘유형별정보’는 ‘제주학DB’, ‘고문헌’, ‘해외문헌’, ‘사진’, ‘동영상’ 등 9가지의 매체로 분류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담당자에 따르면 ‘분야별정보’와 ‘유형별정보’로 나눈 이유는 초보자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누었다고 한다. ‘제주어자료실’은 제주어를 연구하는 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시청각자료’, ‘구술자료’, ‘제주어사전’, ‘제주어 문헌’, ‘법령 및 조례’, ‘제주어 기사’로 분류하여 검색할 수 있다. ‘지식네트워크’는 제주학 총서나 연구보고서, 세미나 자료 등 제주학 관련 연구의 검색이 가능하다. ‘오픈아카이브’의 경우 연구자가 자신이 지닌 제주학 관련 자료를 기증받고 이를 토대로 다른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오픈아카이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아직 많은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자료 기증만이 가능하다.

제공되는 자료들은 논문이나 보고서 등은 원문을 홈페이지에서 보거나 다운로드 또한 가능하다. 만약 원문을 실지 못한 경우에는 링크를 걸어 링크를 통해 원문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제주 향토문화자료 현황 종합 분석

### 4.1 기관 분석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서비스하는 기관은 제주도청,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로 크게 4종류로 나눌 수 있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제주도청 2개 부서, 박물관 4개, 도서관 15개, 연구소 1개까지 총 22개의 기관을 조사하였다. 이 중 실질적으로 향토문화자료를 수집 관리하고 있는 10개의 기관을 인터뷰 등을 통하여 상세 조사를 하고 분석하였다.

<표 13> 조사기관 현황

기관유형	기관명	향토문화자료 수집정책유무	담당자	기록관리 전문요원 여부
지방정부	탐라기록관리소	○	○	○
지방정부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	△	×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	○	×
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	○	×
박물관	제주대학교 박물관	○	○	△
박물관	제주추사관	×	○	×
도서관	한라도서관	○	○	×
도서관	삼매봉도서관	×	○	×
도서관	동부도서관	×	○	×
연구소	제주학연구센터	○	○	○

총 10개 기관 중에 수집정책이 있는 기관은 5개 기관이며 탐라기록관리소와 박물관 2개, 도서관 1개, 제주학연구센터가 수집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

고 있었다. 향토문화자료를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향토문화자료수집에 대한 정책이 미비한 경우도 4개 기관이어서 체계적인 향토문화자료 수집관리 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기관이 자료 수집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제주향토문화자료 전체를 포괄하는 수집,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수집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못한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제주추사관의 경우 정책 정도의 수준이 아닌 좀 더 낮은 수준의 박물관 지침과 내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수집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물을 정하고 수집하고 있었다. 향토문화자료 수집정책이 있는 기관은 조사대상 이었던 3개 기관 중 한라도서관이 유일하며, 다른 2개 기관은 향토문화자료를 기증위주로 받아 특별한 수집정책이 없었다.

향토문화자료 담당자는 세부조사를 한 10개 기관 모두 지정되어 있었으나 문화정책과의 경우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건의 주제별로 담당자가 나뉘어 있고 담당자가 없는 주제 분야도 있었다.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탐라기록관리소와 제주학연구센터 2개 기관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았고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박물관 소속이 아닌 총무과에 소속된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협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제주학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서 제주관련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2명의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는 수준에 해당하며 기록보존과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전문기록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 4.2 자료 수집관리 분석

4.2장에서는 3장 제주 향토문화자료 현황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주 향토 문화자료의 유형과 기관별로 수집된 자료의 주제를 분석하였다.

### 4.2.1 자료 유형 분석

제주도청의 탐라기록관리소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현재 112,064건의 비전자기록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비전자기록물을 스캔하여 홈페이지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록물 DB가 구축 중인 과정이라 구체적인 자료 수량 파악이 어려웠다.

반면 제주도청 문화정책과의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은 16,861건의 자료를 DB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박물관의 경우 4개의 박물관이 71,156건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었으며 향토문화자료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다. 향토문화자료들은 주로 기증, 기탁, 구입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있다. 기증, 기탁, 구입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자연사 부분 한정 직접 채집으로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고 있었으며, 제주대학교 박물관은 2016년 이후 구입의 방식으로는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있었다. 자료들은 주로 행정박물이 주를 이루며 그 외 사진자료, 고문서, 동영상, 음성자료(노래, 녹음자료) 등이 있었다.

도서관의 경우 15개의 제주 공공도서관 중 5개 기관만이 향토자료실 혹은 이에 준하는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도서관이 향토문화자료만을 따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수량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자료들은 주로 제주 관련 도서가 많았으며 옛 신문 등의 자료를 소장한 경우도 있었다.

연구소의 경우 제주학연구센터가 47,261건의 자료를 DB화 시켜 제주학 통합 아카이브인 제주학아카이브로 제공하고 있었다. 자료들은 직접 수집하

거나 박물관, 도서관, 제주 관련 연구소 등에서 자료를 기증 받거나 요청하여 받고 있다. 자료들은 연구소들로부터 받은 각종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등과 도서관 등에서 받은 도서류(단행본), 고문헌, 고지도, 사진, 동영상, 음성자료, 신문기사 등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박물관과 달리 향토문화자료의 실물인 행정박물은 없었다.

<표 14> 기관 유형별 향토문화자료 현황 분석

(단위: 건)

기관		주요 자료유형	수집 여부	수집 방법	DB화 여부	수량
지방 정부	탐라기록 보존소	행정관련 보고서, 행정박물, 민간기록물-향토자료 등	상시 수집	기증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	112,064
	문화정책과 (멀티미디어대사전)	제주 관련 향토문화자료의 사진, 동영상 등	상시 수집	기증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	16,861
박물관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향토문화자료 관련 유물 (행정박물) 및 유물들의 사진, 고문서 등	상시 수집	기증 기탁 구입 채집	○	37,581
	국립제주 박물관	행정박물 사진 자료 고문서 동영상 음성 자료 등	정기적 수집	기증 기탁 구입	○	26,793
	제주대학교 박물관	행정박물 사진 자료 고문서 동영상 음성 자료 등	정기적 수집	기증 기탁	○	6,645
	제주추사관	고문헌 및 행정박물	상시 수집	기증 구입	○	137
도서관	제주 향토문화 관련 도서류, 제주 향토인이 지은 도서류, 옛 신문 등	상시 수집	기증 위주	△ (한 곳만 있음)	장서목록 중 향토자료 구분 불가	
연구소	제주 관련 연구소들의 보고서, 제주 관련 논문, 고문헌 등	상시 수집	기증 및 관련 기관 협조 요청	○	47,261	

조사결과 조사한 기관들은 총 248,892건의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었으며 자료 유형은 행정박물,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 고문헌, 고지도, 도서류(단행본), 연구 보고서, 논문 등이 있었으며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청을 제외한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 자료들을 제주학연구센터에서 수집하고 있다.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은 상시 수집을 하고 있었고, 2개 기관은 연간으로 정기적 수집을 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시 필요한 자료의 유형을 제안하고자 각 기관들이 향토문화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 활용하는 자료들의 유형들을 분석하였다. 제주 향토문화자료들을 다루는 기관들은 향토문화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 텍스트(웹페이지, pdf)와 이미지, 동영상, 음성자료 등 5가지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텍스트는 주로 웹페이지와 pdf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웹페이지 텍스트는 향토문화자료들의 설명을 웹페이지 내에서 텍스트로 적어 넣는 방식의 서비스로 기관 내 향토문화자료들을 1페이지 이내로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의 유형과 주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기에 범용성이 높다. pdf의 방식은 향토문화자료의 논문이나 보고서, 고문서, e-book 등 원문이 있는 자료의 경우 사용되고 있다. 웹페이지 상에서 텍스트로 설명을 하는 방식과 달리 pdf 방식의 경우 내용의 분량에 관계없이 현재 창, 새 창, 다운로드의 방식으로 원문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지 자료는 시각적 정보가 중요한 유물 같은 향토문화자료에 많이 쓰이는 자료 유형으로 유물의 실물 사진을 보고,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해당 자료들은 img 형식의 파일로 제공되며 웹페이지에 다운로드 항목이 있거나, 마우스 우클릭을 통하여 사진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경우 사진을 다운로드가 불가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이미지 자체를 올려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동영상은 굿하는 장면이나 어부들의 물질하는 장면 등 주로 동적인 상태의 시각적 정보가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구비문화이나 제주 방언, 민요 등 오디오 자료도 부르는 장면을 녹화하여 동영상 자료로 제작되었다. 제주 설화와 같은 구비 문화를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동영상 자료로 제공할 수

도 있다. 동영상 자료들은 웹페이지에서 재생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재생할 때는 adobe flash player을 이용하거나 flowplayer을 이용하며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는 mp4 형식의 파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음성자료의 청각적 정보가 중요한 민요나 인터뷰 등에 많이 사용되는 자료 형식으로,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재생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동영상 자료와 달리 재생할 때는 adobe flash player만을 이용하여 재생하고, 다운로드 받을 때는 mp3 파일 형식으로 받는다.

<표 15> 온라인서비스 되는 향토문화자료들의 자료 유형

자료유형	설명
텍스트 (웹페이지)	온라인서비스 시 가장 기본이 되는 방식. 각종 향토문화자료들의 설명을 웹페이지에 텍스트로 적어 넣는 방식의 서비스
텍스트(pdf)	온라인서비스 시 향토문화자료의 원문을 제공할 경우 쓰이는 자료유형. 홈페이지 상에서 pdf파일을 보거나 다운로드 받는 방식으로 자료의 원문을 제공하는 서비스
이미지	향토문화자료가 유물일 경우 유물의 실제 사진을 보여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img파일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저작권이 걸려있지 않을 경우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동영상	직접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한 제주설화나 방언, 민요의 경우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그 외에는 종교나 토속문화(굿하는 장면, 혹은 물질하는 장면 등)의 경우에도 관련 동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음. 동영상은 홈페이지 상에서 재생되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으며 재생할 경우 adobe flash player을 이용하거나 flowplayer을 이용함. 다운로드를 받을 경우엔 mp4파일 형식으로 받을 수 있음
음성자료	듣는 것이 중요한 민요나 인터뷰 같은 경우 많이 사용됨.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재생(adobe flash player 이용)하거나 다운로드(mp3파일 형식)를 받을 수 있음

#### 4.2.2 주제 분석

각 기관들에서 활용한 향토문화자료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주제들은 박물관 등이 온라인서비스에서 향토문화자료에 적용한 주제들과 제주학연구센터와 도서관에서 향토문화자료 분류에 적용한 분류 항목인 KDC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수집되고 있는 제주향토문화자료의 주제를 수집, 분석하여 통합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고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총괄 할 수 있

는 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하는 새 주제는 5.2 장에서 설명하겠다.

1) 제주 향토문화자료 온라인서비스에 활용하고 있는 주제

각 박물관 홈페이지의 주제와 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에서 쓰이던 주제를 합쳐 총 29개의 주제를 조사하였다. 이 중 동일 주제로 묶을 수 있는 11개의 주제를 통합하여 21개의 주제로 전거하였다. 예를 들어 ‘제주의 바다’라는 어업관련 물품을 다루는 주제는 제주의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산업과 생업들과 관련된 주제인 ‘산업/생업’ 주제에 통합하는 식으로 11개의 주제를 통합, 전거하였다.

<표 16> 웹사이트에서 활용되는 향토문화자료 주제

주제	설명
의식주	전통 의식주 문화와 관련된 주제
사회생활	항로나 호패, 교지 등 결혼, 제사, 신분 증명 같은 의례 생활, 사회 제도 등을 다루는 주제
문화예술	음악도구부터 고지도, 현판, 그림, 문헌 등 전통 문화예술에 관한 주제
종교(불교,무속신앙)	제주에 있던 불교, 유교, 민간, 무속신앙 등 종교와 관련된 주제
민속/풍물	민가와 비슷한 주제
유물(재질별 분류)	유물들을 재질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주제
산업/생업	제주의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산업과 생업들과 관련된 주제
제주어(방언,속담)	제주도 만의 방언과 속담 등 제주어에 대해 다루는 주제
제주 설화	제주에 내려져오는 설화와 관련된 주제
제주 민요	제주에 내려져오는 전통 민요와 관련된 주제
전통과학	지도와 나침반 등의 지리, 옛 의학서 등의 의료 등
교통/통신	전통적인 교통 장비(말을 타기위해 준비하는 마구나 가마 등)와 옛 통신장비(옛날 전화기 등)를 다루는 주제
역사	역사적인 장소나 인물, 사건 등을 다루는 주제
관광	관광지로 다뤄지는 장소(ex-명승지)에 관한 주제. 역사적인 장소도 관광지로 다뤄지기에 역사주제와 겹치는 부분이 있음
자연	제주의 자연 환경과 관련된 주제
통과의례	전통 풍습 중 ‘장례’와 관련된 주제

세시풍속	일상 중 계절에 맞춰 되풀이하는 전통 행사와 관련된 주제
민속놀이	전통 민속놀이와 관련된 주제
민속공예	일상에서 보이는 공예품들을 다루는 주제
민구	쟁기 등 일상에 쓰이던 도구들에 관한 주제
기타	기타 주제

## 2) 제주 향토문화자료 KDC 분류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분류 할 때 활용된 KDC는 10개의 주제와 47개의 하위 주제로 이루어져 있다. 10개의 주제는 그대로 쓰지만 ‘총류’의 ‘제주학’, ‘사회’의 ‘여성’, ‘역사’의 ‘4.3(사삼운동)’과 ‘제주사 일반’ 등 몇몇 하위 주제는 제주학 연구에 맞는 하위 주제를 자체적으로 추가하거나 배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 17> 향토문화자료 분류에 적용된 KDC 목록

주제	하위주제	주제	하위주제	
총류	제주학	기술과학	의,식,주	
	연보		건축	
	학술조사		농축업	
	기타		수산업	
철학	철학		의학	
	무속		산업	
	불교		기타	
종교	기타		예술	음악
	여성		미술	
	문화		기타	
사회과학	민속	언어	제주어	
	사회		기타	
	교육	문학	구비문학	
	행정·법		현대문학	
	관광		기타	
	경제		고고	
	정치		지리	
	기타	제주사일반		
	순수과학	동물	역사	사회
식물		문화		
환경		4.3(사삼운동)		
해양		인물		
지질		항일운동		
기타		기타		

### 4.3 서비스 방식 분석

다음은 기관별 서비스 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서비스는 소장한 향토문화자료를 상설전시나 기관 내 대출 등 직접적으로 제공해주는 오프라인서비스와 온라인상에서 상세정보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방식으로 나눌 수 있었다.

오프라인서비스는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주로 행해지는 서비스로, 박물관은 수집한 자료들은 상설전시, 특별 전시전 실시, 참여 프로그램 실시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며 도서관은 향토문화자료를 향토자료실 내에서 열람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도서관의 향토문화자료는 열람만이 가능하고 대출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으나, 신청 시 해당 자료의 복사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온라인서비스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기관이 소장한 향토문화 자료의 상세정보나 사진, 영상, 녹음 파일 등을 제공하며 자료 검색 및 자료 상세자료 제공의 온라인서비스 방법을 통해 서비스가 되고 있다.

온라인서비스는 대부분의 기관들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제주도청의 탐라 기록관리소와 제주의 공공도서관들은 인력 부족 혹은 향토문화자료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구분이 안 되는 등 각 기관의 한계로 인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각 기관들이 향토문화자료를 온라인서비스 할 때는 한 가지 유형만으로 서비스하는 단독형과 두 가지 유형 이상으로 서비스하는 혼합형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단독형은 텍스트(웹페이지)만을 제공하는 경우, 사진 혹은 동영상만 제공하는 경우, 목록만 제공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웹페이지)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향토문화자료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때 주로 사용된다. 다만 저작권 등의 문제로 사진이 필요하지만 올리지 못하여 게재해야 할 사진에 대해 설명이 필요 할 때 사용될 수도 있다. 이 때 텍스트에는 향토문화자료의 이름과 개요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며 설명하는 향토문화자료의 성격에 따라 재질, 시대, 분류항목, 분량, 저자 등의 상세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사진

만 제공되는 경우와 동영상만 제공되는 경우는 미리 항목을 주제별로 분류해 놓거나 사진 혹은 동영상의 제목 자체가 설명이 되어 텍스트로 추가 설명이 필요 없는 경우이다. 목록만 제공하는 경우는 설화 목록, 관련 도서 목록 등 자료의 소장 목록이 있을 때 제공될 수 있으며, 목록을 통해 소장한 향토문화자료들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8> 단독형 서비스 방식 종류

서비스방식	해당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만 제공	향토문화자료에 대해 설명해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 거의 사용됨. 기본적으로 자료의 기본 개요와 설명하는 자료의 성격에 따라 추가적인 상세정보를 입력함
이미지(사진)만 제공	미리 항목을 주제별로 분류해 놓았거나 사진의 제목 자체가 설명이 될 경우 텍스트 없이 사용됨
동영상만 제공	미리 항목을 주제별로 분류해 놓았거나 동영상의 제목 자체가 설명이 될 경우 텍스트 없이 사용됨
목록만 제공	설화 목록, 관련 도서 목록 등 자료의 소장 목록이 있을 경우 제공되는 방식

혼합형은 단독형에 나온 서비스 방식들이 혼합되어 제공되는 방식이다. 기본적으로 웹페이지 상에서 텍스트를 통해 향토문화자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이미지(사진), 동영상, 음성자료, 위치 안내용 구글맵, pdf 파일을 제공하고 저작권의 문제가 없을 경우,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텍스트와 이미지(사진)가 첨부되는 경우는 향토문화자료 중 박물관의 유물들에 관해 설명할 때 쓰이고 있다. 텍스트와 동영상 혹은 음성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는 세시풍속이나 민속놀이처럼 영상자료가 중요하거나 제주 방언이나 제주 속담처럼 음성 정보가 중요한 주제일 때 쓰이고 있다. 텍스트와 사진, 위치 안내 용 구글 맵이 제공되는 경우는 관광지나 문화재의 위치처럼 자료의 위치가 중요할 경우 쓰이고 있다. 텍스트와 링크가 제공되는 방식은 자료를 특정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을 경우에 제공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옛 신문기사 같은 경우 국사편찬위원회가 제작한 ‘한국사데이

터베이스'라는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어 해당 사이트의 링크를 달아두고 해당 사이트에서 신문기사에 관한 정보와 이미지를 볼 수 있다. 텍스트와 pdf 파일이 제공되는 경우는 향토문화자료 중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고문헌 등 원문이 있고 이를 확보한 경우 제공되는 방식으로 자료의 원문을 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19> 혼합형 서비스 방식 종류

서비스 방식	해당 서비스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텍스트 + 사진	향토문화자료 중 유물류에 관해 설명과 실물 사진이 필요한 경우 사용됨. 다만 저작권 등의 문제로 다운은 불가능한 경우임
텍스트 + 사진 + 원자료 다운로드	향토문화자료 중 유물류에 관해 설명과 실물 사진이 필요한 경우 사용됨.
텍스트 + 동영상재생	제주 설화를 그린 애니메이션과 제주의 곳 문화, 생태계 관련 동영상 등 직접 움직이는 영상이 필요한 경우 사용됨.
텍스트 + 음성자료 재생	제주 민요나 제주 방언 등 듣는 것이 중요한 경우 사용됨. 텍스트 + 동영상재생 서비스 방식보다 파일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텍스트 + 사진 + 위치제공(구글 맵)	향토문화자료 중 위치자료가 필요한 경우(특정 기관에 있는 것이 아닌 특정 위치에 있는 경우) 제공되는 방식
텍스트 + 동영상 재생 + 원자료 다운로드	제주 설화를 그린 애니메이션과 제주의 곳 문화, 생태계 관련 동영상 등 직접 움직이는 영상이 필요한 경우 사용됨. 자료의 다운은 저작권이 허락된 자료들만 가능하다.
텍스트 + 음성자료 재생 + 원자료 다운로드	제주 민요나 제주 방언 등 듣는 것이 중요한 경우 사용됨. 텍스트 + 동영상재생 서비스 방식보다 파일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텍스트 + 링크 제공	향토문화자료 중 옛 신문 등 원문이 해당 사이트에서만 볼 수 있는 경우 제공되는 방식
텍스트 + pdf(원문) 제공	향토문화자료 중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고문헌 등 원문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사용되는 방식
텍스트 + pdf(원문) 제공 + 원자료 다운로드	향토문화자료 중 논문이나 연구보고서, 고문헌 등 원문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사용되는 방식. 자료의 다운은 저작권이 허락된 자료들만 가능하다.

## 5.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방안에 관한 시사점 및 제안

### 5.1 제주 향토문화자료 운영체제에 대한 시사점 및 제안

4.1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운영을 위한 운영체제에 대한 시사점과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향토문화자료는 지역의 과거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며, 잘 보존해야 하는 가치 있는 기록이다. 하지만 기관별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각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향토문화자료를 온라인서비스 하는 것에 대해 많은 한계점을 느끼고 있었으며, 향토문화자료의 통합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도서관 측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제주학아카이브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박물관 측은 제주학연구센터가 운영하는 제주학아카이브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제주학연구센터가 자료의 저작권이나 협력의 부족 등으로 제주학아카이브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기증받거나 요청하여 전달 받지만, 공공기관과 박물관이 협력을 해주지 않아 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고 온라인서비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러므로 공신력 있는 주체 기관과 향토문화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기관 조사를 위해 시행한 인터뷰에서는 대부분의 기관 담당자들이 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 서한글(2012)과 김희용(2018)의 연구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실을 언급한 것을 토대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주체가 되는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서비스 운영체제를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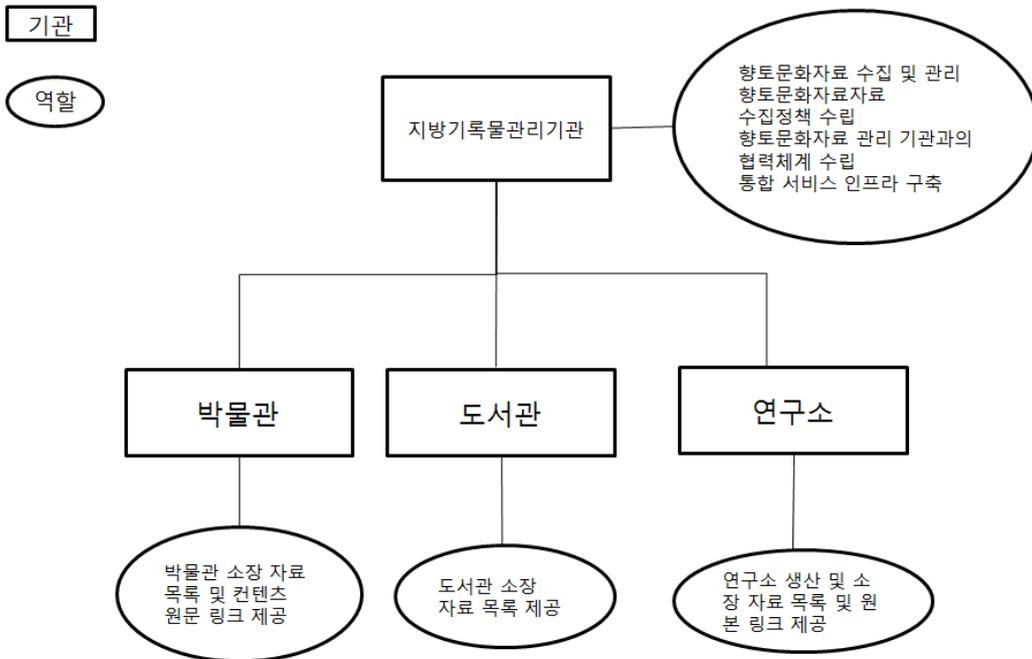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다루는 기관으로 제주도청과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 등 크게 4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서비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물관의 경우 다른 박물관이 자료들의 저작권 및 기타 문제로 모든 자료의 목록이나 상세 정보를 받지 못하고 협력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박물관이 소장한 국보급의 유물이거나 해당 박물관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특정 유물처럼 얻기 힘든 자료들은 해당 박물관의 중요 유물이라 하여 타 박물관이나 기관에 대여해주거나 상세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중요 유물에 있어서는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 이 외의 문제로 자료 수집의 어려움과 인력부족 및 이로 인해 DB 구축이 완전히 되지 않아 수집한 자료들을 전부 DB화 시켜 온라인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박물관은 향토문화기록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도서관은 향토자료실 혹은 그에 준하는 자료실을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는 향토문화자료만을 따로 분리하여 컬렉션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도서관 중 향토자료실을 운영하는 곳보다 운영하지 않는 도서관이 더 많고, 운영하는 도서관조차 실질적으로 관리하는데 힘이 드는 상황에서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를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기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연구소인 제주학연구센터는 저작권이나 중요 유물의 공개 문제 등으로 협력이 되지 않는 부분과 국가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수집과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지속적인 지원이 불확실하며 타 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도 민간 기관으로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었다.

현재 지방정부 행정부서로서 탐라기록관리소가 존재하지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탐라기록관리소는 독립적인 전문기록관리기관이 아니라 총무과에 속하여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통합 서비스를 운영할 만한 인프라 및 체제가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합 서비스의 주체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제주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없으므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하여 행정기록 및 향토문화기록을 전담하는 전문기록관리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림 6>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운영체제(안)

제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향토문화자료 관련 기관들이 참조 가능한 수집정책의 수립이다. 조사 결과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할 근거가 되는 수집 정책이 없거나 한 단계 낮은 내부 규정만 있는 기관들이 있었다. 제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제주 향토문화자료의 지속적인 수집을 위하여 수집정책이 없는 기관들을 위한 표준이 될 수 있는 수집정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정부차원에서의 향토문화자료의 수집 및 관리이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향토자료의 수집과 관리가 의무이므로,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인력확보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향토문화자료 관리가 가능하다.

셋째, 향토문화자료 관리 기관과의 협력체계 수립이다. 여러 곳에 분산되어 관리되는 향토문화자료를 일반인들에게 쉽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각 기

관들의 향토문화자료를 한 곳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목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수립하여 통합목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합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통합목록을 구축하였다면 이를 검색하고, 서비스 할 수 있는 통합검색 홈페이지가 필요하다. 통합 검색 홈페이지는 콘텐츠 주제 분류, 통합 목록 구축, 통합 목록을 기반으로 한 통합 검색 서비스 제공, 주제에 기반 한 분류 검색, 기관별 검색 등을 제공하는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며, 통합검색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한 통합 서비스 운영체제를 만듦으로서 기관 별로 나뉜 향토문화자료를 통합 검색하여 향토문화자료의 소재지 파악 및 타 기관 자료 파악이 불가하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제주 향토문화자료의 현황파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박물관, 연구소 등 한 기관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문제가 있는 콘텐츠 부족의 문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향토문화자료를 서비스하기 위해 다양하게 콘텐츠를 갖춤으로써 해결될 것이다.

## 5.2 제주 향토문화자료 수집·관리에 대한 시사점 및 제안

조사결과 조사한 기관들의 향토문화자료 유형으로는 행정박물,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 고문헌, 고지도, 도서류(단행본), 연구 보고서, 논문 등이 있다.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때는 텍스트(웹페이지, pdf)와 이미지, 동영상, 음성 자료 등 5가지의 유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의 향토문화자료를 통합하여 소재정보를 제공하고 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자료 유형을 기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므로 통합 서비스의 자료들은 텍스트(웹페이지, pdf)와 이미지, 동영상, 음성 자료의 형태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제주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주제로는 4.2에서 분석한 온라인서비스 시 향토문화자료에 적용한 주제와 KDC를 혼합하여 제안하였다. 온라인서비스 시 적용한 주제와 KDC를 혼합한 이유는 온라인서비스 시 적용한 주제만으로는 제주학연구센터에서 KDC를 이용해 분류한 각종 논문과 보고서, 옛 신문 등 서적류의 분류가 힘들고, KDC만으로는 반대로 박물관의 주요 자료인 유물 같은 행정박물을 분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둘을 혼합하여 새로운 대주제를 제안하며 각 대주제의 소주제는 기존에 수집되고 있는 향토문화자료의 주제를 적용하였다. 두 주제 분류체계를 매핑한 과정은 <표 20>과 같다.

<표 20> 기존 주제와 통합 서비스 주제 매핑

통합 서비스 주제	유형	매핑된 기존 주제
종교	KDC	무속 불교
	웹 주제	종교(민간, 무속신앙)
사회	KDC	경제
		관광
		교육
		사회
		여성
		연보
		정치
		제주학
		학술조사
		행정·법
		철학
민속/풍물	KDC	민속
	웹 주제	민구
		민속/풍물
		민속공예
		민속놀이
		세시풍속
통과의례		
생활문화	KDC	문화
		산업
		의식주
	웹 주제	관광
		교통/통신
		사회생활
		산업/생업
		의식주
자연	KDC	동물
		식물
		지질
		해양
		환경
	웹 주제	자연
예술	KDC	미술
		음악
	웹 주제	제주 민요 문화예술
문학/언어	KDC	구비문학
		제주어
		현대문학

역사	웹 주제	제주 설화
		제주어(방언,속담)
	KDC	4.3(사삼운동)
		고고
		의학
		인물
		제주사일반
		지리
		항일운동
	웹 주제	역사
		유물(재질별 분류)
		전통과학

주제는 ‘종교’, ‘사회’, ‘민속/풍물’, ‘생활문화’, ‘자연’, ‘예술’, ‘문학/언어’, ‘역사’ 등 8가지이다. 주제의 순서는 KDC의 주류표를 참조하여 배치하였고, KDC 상에서 같은 주제에 들어가는 주제들은 가나다순대로 배치하였다.

#### 1) 종교

제주의 무속신앙과 민간신앙을 포함하여 제주도에서 믿는 종교와 관련된 주제로서 ‘종교(민간, 무속신앙)’, ‘무속’, ‘불교’의 하위 주제가 포함되었다.

#### 2) 사회

제주의 교육, 행정, 경제 등 제주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향토문화자료를 분류하는 주제로 제주와 관련된 논문, 보고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학’, ‘연보’, ‘학술조사’, ‘여성’, ‘사회’, ‘교육’, ‘행정·법’, ‘관광’, ‘경제’, ‘정치’, ‘철학’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여성’ 주제는 제주도에 여자가 중심이 된 사회적 현상이나 문화가 많고 이를 연구하거나 글로 쓴 자료가 많기에 ‘사회’ 주제에 추가하였으며, ‘철학’ 주제는 KDC에서 10개의 주류 주제 중 한 주제였지만 향토문화자료와 관련해서는 자료의 수량이 매우 적었기에 ‘사회’ 주제에 추가하였다.

### 3) 민속/풍물

제주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행사나 계절별로 행하던 세시풍속, 민속 행사,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는 민구 등과 관련된 주제이다. ‘세시풍속’, ‘민속놀이’, ‘풍물/민구’의 하위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 4) 생활문화

제주의 전통 문화와는 다른 제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제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의식주’, 과거 제주인들의 교통수단과 통신 장비 등을 다루는 ‘교통통신’, 결혼이나 제사, 신분 증명 같은 의례 생활과 사회모습을 다루는 ‘사회생활’, 농업, 어업, 임업 등 제주인들의 삶의 수단을 다루는 주제인 ‘산업/생업’, 제주도의 관광지와 관련된 ‘관광’의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산업/생업’ 주제는 온라인서비스 상에서의 향토문화자료에 적용한 주제의 ‘산업/생업’과 KDC의 ‘농축업’, ‘수산업’, ‘산업’을 포함하였다.

### 5) 자연

제주의 동, 식물, 환경 등 제주의 자연과 관련된 주제이다. ‘동물’, ‘식물’, ‘환경’, ‘해양’, ‘지리’의 하위 주제가 포함하고 있다.

### 6) 예술

제주의 전통 음악과 미술 등 문화예술에 대해 분류해 놓은 주제이다. ‘음악’과 ‘미술’, ‘문화예술’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음악’은 제주의 전통민요 등이 포함되고 ‘미술’은 제주의 전통 공예품, 서화, 조각 등이 있다.

## 7) 문학/언어

제주에 전승되는 설화나 제주어 등 제주의 문학과 언어와 관련된 향토문화자료를 분류해 놓은 주제이다. ‘제주설화’, ‘구비문학’, ‘현대문학’과 ‘제주어’로 나누었다. ‘제주어’에는 ‘제주방언’과 ‘제주속담’을 포함하였다.

## 8) 역사

제주의 역사와 관련된 주제이다. 단순 역사부터 고고, 지리, 제주 관련 인물 등과 관련된 주제로 분류한 하위 주제로는 ‘제주사’, ‘고고’, ‘지리’, ‘역사적 사건-4.3, 항일 등’, ‘인물’, ‘유물’, ‘과학’이 있다. ‘과학’의 경우 각종 지도, 의학용품(약탕관, 약초칼, 의수저 등)이나 의학서, 인쇄도구, 인장 등 과거에 쓰이던 과학적 지식이 들어가거나 과학적 사실을 측정하는데 쓰이는 도구들을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역사’ 주제에 추가하였다.

<표 21> 제주 향토문화자료 주제(안)

주제	설명
종교	제주의 무속, 민간신앙을 포함한 종교와 관련된 주제
사회	제주의 교육, 행정, 경제 등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향토문화자료를 분류하는 주제
민속/풍물	제주 민속 문화관련 주제를 분류하는 주제
생활문화	제주의 당시 생활상을 나타내는 향토문화자료를 분류하는 주제
자연	제주의 동, 식물, 환경 등 제주의 자연과 관련된 향토문화자료를 분류하는 주제
예술	제주의 전통 음악과 미술 등을 분류하는 주제
문학/언어	제주에 전승되는 설화나 제주어 등 제주의 문학과 언어와 관련된 향토문화자료를 분류하는 주제
역사	제주의 역사부터 고고와 지리, 인물 등과 관련된 주제

### 5.3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방식에 대한 시사점 및 제안

다음은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 방식에 대한 시사점과 통합 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각 기관들의 향토문화자료의 정보를 통합목록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 유형과 서비스 방식을 반영하여 소재정보만 검색이 가능한 경우 통합목록을 구축하여 이를 텍스트로만 제공하는 단독형 방식으로 제공하고, 텍스트뿐만이 아닌 이미지, 동영상, 음성자료 등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화된 향토문화자료는 통합목록을 구축하여 통합검색 후 상세정보를 웹페이지 상에서 텍스트로 설명하는 서비스를 기본으로 이미지(사진) 혹은 pdf 파일, 동영상 파일, 음성자료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을 제공하며 추가로 제공되는 파일들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혼합형 방식의 서비스를 제안한다. 또한 통합목록 구축 시 각 기관들로부터 받은 향토문화자료에 관한 목록과 상세정보 등을 통합하여 검색할 수 있는 통합검색과 모든 기관의 향토문화자료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분류하기 위해 5.2장에서 제안한 주제별 분류에 따른 주제별 검색을 추가로 갖출 것을 제안한다.

<표 22> 서비스 방식 제안

서비스 방식	서비스 방법	주로 서비스되는 자료
단독형	텍스트	통합목록, 상세정보만 있는 자료
혼합형	텍스트+이미지 제공	사진이 있는 향토문화자료
	텍스트+이미지 및 다운로드 제공	사진이 있는 향토문화자료
	텍스트+이미지 및 원본 링크 제공	사진이 있는 향토문화자료
	텍스트+동영상 재생 제공	동영상이 있는 향토문화자료(제주 해녀의 채집 영상 등)
	텍스트+동영상 및 다운로드 제공	동영상이 있는 향토문화자료(제주 해녀의 채집 영상 등)
	텍스트+동영상 및 원본 링크 제공	동영상이 있는 향토문화자료(제주 해녀의 채집 영상 등)
	텍스트+음성자료 재생 제공	음성자료가 있는 향토문화자료(제주방언이나 노동요 등)
	텍스트+음성자료 및 다운로드 제공	음성자료가 있는 향토문화자료(제주방언이나 노동요 등)
	텍스트+음성자료 및 원본 링크 제공	음성자료가 있는 향토문화자료(제주방언이나 노동요 등)
	텍스트+pdf(원문) 제공	원문파일이 있는 향토문화자료(논문, 고문헌 등)
	텍스트+pdf(원문) 및 다운로드 제공	원문파일이 있는 향토문화자료(논문, 고문헌 등)
	텍스트+pdf(원문) 및 링크 제공	원문파일이 있는 향토문화자료(논문, 고문헌 등)
	텍스트+관련 사이트 및 링크 제공	원문파일이 있는 향토문화자료(논문, 고문헌 등)
텍스트+위치제공(구글 맵)	소재지가 중요한 향토문화자료(관광지, 향토문화자료 소장기관 위치 등)	

## 6. 결론

지방기록물들을 지방 행정 업무와 지역 연구, 지역민들의 지역에 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지방 자치 활성화를 이룬다. 지역의 기록물 중 각 지역의 역사나 문화, 지역사회를 표현하는 향토문화자료들은 지역민들에게는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타지방 사람들에게는 향토문화를 홍보하여 널리 알릴 수 있으며, 연구자들에게는 지역에 대한 연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이유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는 기관이 많아 향토문화자료들이 분산되어 관리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향토문화자료들의 소재지가 분산되어 한 곳에서 자료를 검색할 수 없고, 특정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를 지닌 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겼다. 또한 여러 기관들이 중복되는 자료를 따로 수집하거나, 혹은 자료 공유 거부 등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은 지역 내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향토문화자료들을 찾으러 다니고, 서비스를 하는 기관들은 기관 간 협동이 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생기는 등 향토문화자료를 제공받는 자와 제공하는 기관 모두에게 비효율적인 체제를 지니게 되었다. 향토문화자료의 종합적인 수집과 관리의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자료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대상으로 향토문화자료의 통합 서비스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3장에서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대상으로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기관들인 제주 도청의 탐라기록관리소와 제주 도청 문화정책과(멀티미디어 제주민속관광 대사전 사이트), 제주의 박물관 4곳, 제주의 공공도서관 15곳, 제주학 관련 연구소인 제주학 연구센터까지 총 22개 기관의 향토문화자료 수집 및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이 중 10개 기관을 상세 조사하였다. 4장에서는 조사한 현황을 토대로 제주 향토문화자료의 기관별 서비스 현황과 주요 자료 유형을 통합 분석

하였으며 5장에서 이를 토대로 제주 향토문화자료의 통합 서비스를 위해 고려해야 할 시사점 및 주요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 조사를 위해 수행한 인터뷰에서는 각 기관들의 담당자들이 통합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으며,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를 위한 운영체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파악되었다. 제주 향토문화자료 관리 기관으로 제주학연구센터를 비롯한 박물관, 도서관 등이 있으나, 각 기관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체기관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기관들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제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제주도 내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고 서비스하는 기관인 박물관, 도서관, 연구소의 자료를 통합 관리 및 서비스를 주관하는 운영체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제주 향토문화자료의 수집 및 관리되는 유형과 서비스 시 이용하는 분류법을 살펴 본 결과, 통합 서비스를 위해 통일된 방식의 유형과 주제가 필요하여 이를 제안하였다. 향토문화자료의 수집 및 관리되는 유형의 각 기관에서 쓰이는 자료들의 유형을 정리하여 온라인 통합 서비스에 적합한 텍스트(웹사이트, pdf), 이미지, 동영상, 음성자료의 5가지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새롭게 제시하는 주제는 온라인서비스 시 적용한 주제와 연구소 및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KDC를 혼합한 제주 향토문화자료를 담당하는 기관 모두에서 쓰일 수 있는 주제를 제시하고자 ‘종교’, ‘사회’, ‘민속/풍물’, ‘생활문화’, ‘자연’, ‘예술’, ‘문화/언어’, ‘역사’ 등 총 8가지의 주제와 하위 주제를 제안하였다.

셋째, 통합 서비스 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제안하였다. 텍스트(웹페이지, pdf), 이미지, 동영상, 음성자료 5가지의 자료 유형 중 향토문화자료의 목록을 텍스트(웹페이지)로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각 자료들의 상세정보는 2가지 이상의 자료 유형으로 제공하는 혼합형 방식의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제주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중심으로 한 제주 향토문화자료 통합 서비스를 위하여 제주 향토문화자료 현황을 분석한 후 각 영역별로 시사점을 도출한 포괄적인 연구로서 향후 협력체제 및 시스템 구축 등 세부주제

에 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고영순. 2011. 『지방자치단체 시청각 기록물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기록물관리학전공.
- 김덕목. 2012. 민속과 기록의 만남, ‘민속기록학’을 제창한다. 『기록학연구』, 34: 165-219.
- 김덕목. 2013.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마을지의 새로운 방향모색. 『한국민속학』, 58: 99-126.
- 김보경. 2018. 『지방문화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정수. 2016. 민요박물관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구축 방안. 『열상고전연구』, 51: 89-105.
- 김하나. 2007. 『제주도 공공도서관 향토자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김희용. 2018. 『대구광역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남신우. 2003. 『지방기록물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방안』.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문정희. 2008. 『향토자료 관리를 위한 문화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성애. 2007. 『地方自治團體의 記錄物 管理實態와 改善方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 박윤성, 박유선. 2010.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 연구. 『디지털디자인학연구』, 25: 419-428.
- 사공철. 1996. 『문헌정보학 용어사전』.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 서한글. 2012.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 협동과정.
- 성현규. 2017. 『대구광역시 문화유산기관의 향토자료 서비스 방안』. 석사

- 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심가영. 2010.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정보콘텐츠 개발 및 구성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 전공.
- 안건호. 2011. 『지방자치단체 기록물관리 현황과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중부대학교 대학원 기록물관리학과.
- 양인호. 2009. 『디지털 아카이브의 기록정보 콘텐츠 비교 분석』.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오탈규. 2013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의 체계적 공유를 위한 비선형편집 시스템 연계 및 활용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운대학교 산업기술경영대학원 방송영상학과.
- 윤현정. 2017. 문화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 배경과 사례분석. 『한국 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1(6): 303-315.
- 이기훈. 2008.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 이선수. 2006. 한국형 디지털 콘텐츠몰 구축 방안 연구. 『인문콘텐츠』, 8: 357-376
- 이상훈. 2001.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의 지평. 『한국방송학보』, 15(2): 269-302.
- 이영학. 2010.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기록학연구』 26: 63-93.
- 장윤금. 2010. 역사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 방안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1(4): 193-203.
- 정범진. 2018. 『참여형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지역기록의 활용 방안』.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정주연. 1988. 『향토자료의 효율적 관리방안』.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최원태. 2001. 디지털 아카이브의 현황 및 구성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23-40.
- 최정은. 2010. 『지방 역사기록물 온라인 아카이브 구축방안』. 석사학위논문

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관리학과.  
한동현. 2011. 모바일 서비스 시대의 향토 문화 자료 서비스 방안. 『역사문화연구』, 40: 449-484.

#### [관련법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3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60호).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9호).

#### [웹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 [online] [cited 2018. 05. 28.] <<http://www.law.go.kr/>>  
국립제주박물관. [online] [cited 2018. 12. 03.]  
<<http://jeju.museum.go.kr/html/kr/index.html>>  
멀티미디어 민속관광 대사전. [online] [cited 2018. 12. 03.]  
<<http://www.jeju.go.kr/culture/digitalContents/directory.htm>>  
미국아키비스트협회(Society of American Archivist).  
[online] [cited 2018. 05. 27.] <<https://www2.archivists.org/>>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기록관(California State Archives).  
[online] [cited 2018. 11. 20.] <<https://www.sos.ca.gov/archives/>>  
영국 노퍽 기록관(Norfolk Record Office).  
[online] [cited 2018. 11. 20.] <<https://www.archives.norfolk.gov.uk/>>  
제주대학교 박물관. [online] [cited 2018. 12. 03.]  
<<http://museum.jejunu.ac.kr/>>  
제주민속자연사 박물관. [online] [cited 2018. 12. 03.]  
<<http://www.jeju.go.kr/museum/index.htm>>  
제주학아카이브, 제주학연구센터. [online] [cited 2018. 12. 03.]  
<<http://www.jst.re.kr/main.do>>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online] [cited 2018. 11. 07.]  
<<http://lib.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기록관. [online] [cited 2018. 05. 29.]

<<http://www.jeju.go.kr/open/jeju/info/work.htm>>

제주추사관. [online] [cited 2018. 12. 03.]

<<http://www.jeju.go.kr/chusa/index.htm>>

캐나다 온타리오 주립기록관(Archives of Ontario).

[online] [cited 2018. 11. 20.]

<<http://www.archives.gov.on.ca/en/index.aspx>>

호주 빅토리아 주립기록관(Public Record Office Victoria).

[online] [cited 2018. 11. 20.] <<https://www.prov.vic.gov.au/>>